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400-01

China

#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

중국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Contents

발간사	1
<b>중국 개황</b>	4
중국 주요 경제지표	4
중국 FTA 체결현황	5
중국 통관·통상환경	5
<b>한-중국 FTA의 개관</b>	6
1. 추진경과	6
2. 체결 의의	6
3. 한-중국 FTA 협정문 구성	7
4. 한-중국 FTA 발효,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	7
5. 한-중국 FTA 수출 활용률	8
<b>한-중국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b>	9
<b>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b>	11

<b>제 I 장 한-중국 FTA 활용품목 및 활용방안</b>	14
1. 한-중국 FTA발효 전후 對중국 교역량 비교	15
2. 한-중국 FTA 활용현황 및 활용품목 추천	17
3. 류(HS2단위)별 활용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20
4. 류(HS2단위)별 한-중국 FTA 양허품목의 APTA 활용실익 분석	35
 <b>제 II 장 중국의 통관 법제도</b>	 46
1. 통관 조직 및 절차	47
2. 최근 통관 법제도 이슈	52
3. 인증제도	66
4. 라벨링제도	75
 <b>제 III 장 중국의 통상 법제도</b>	 82
1.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83
2.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89
 <b>제 IV 장 중국 전자상거래 (E-Commerce, EC)</b>	 93
1.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94
2.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100
3.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형 및 유의사항	104
4.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115



## 발 간 사 ▶▶▶

2015년 12월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한-미 FTA를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까지 한국의 3대 수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후 이들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매년 확대되어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준의 약 50%에 근접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FTA 활용정보와 수출을 위한 핵심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어 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 중국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한-중국 FTA 활용현황 분석 및 활용품목 추천 정보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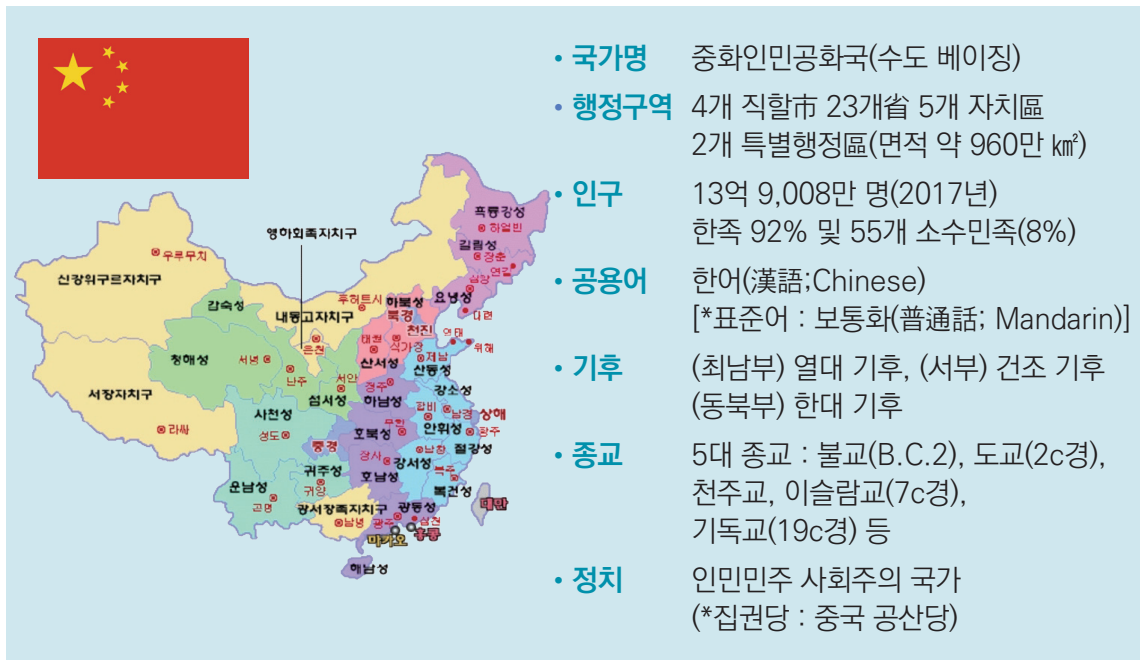
또한, 변화하는 무역환경 및 통관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으로 시장진입 시 필요한 신규 통상·통관 이슈도 업데이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및 진출 가이드라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한-중국 FTA 활용을 위한 핵심정보 제공과 변화하는 통관제도 및 통상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10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성 태 곤

## 중국 개황



## 중국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2017	2018f	2019f	2020f
GDP(십억 달러)	12,014.6	13,475.3	14,172.2	15,462.0
GDP 성장률(%)	7.1	12.0	5.3	9.1
1인당 GDP(달러)	8,643.1	9,633.1	10,098.5	10,971.5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2.2	2.4	2.7
상품·서비스수출(%)	9.3	5.5	4.5	4.2
상품·서비스수입(%)	7.1	8.2	5.1	5.0
실업률(%)	3.9	4.0	4.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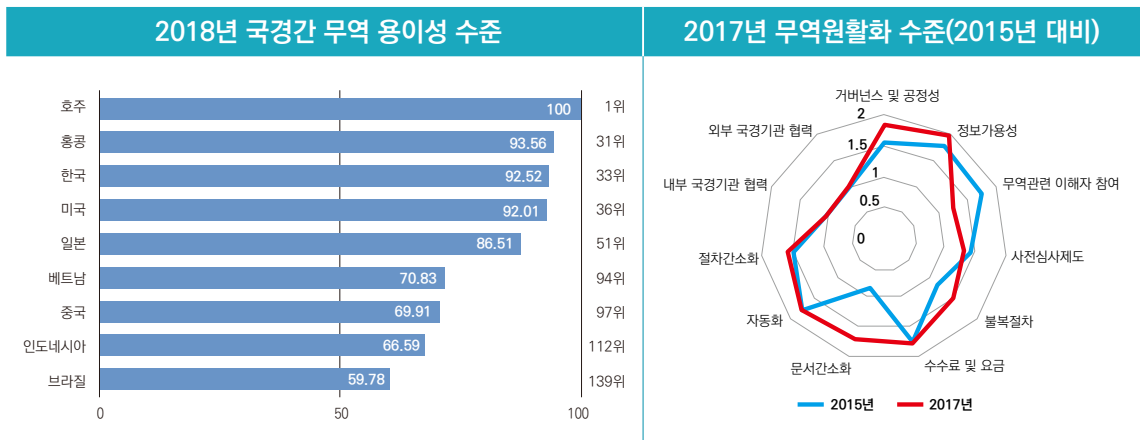
주 : f(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중국 FTA 체결현황

체결 및 발효 (17건)	다자간	ASEAN("10+1") <sup>1)</sup>
	양자간	한국, 호주, 스위스, 태국,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칠레, 아이슬란드, 페루, 뉴질랜드, 파키스탄, 조지아, 몰디브(서명)
	중화권	중화권(홍콩CEPA, 마카오CEPA, 대만ECFA)
협상중(10건)	다자간	한·중·일, RECP <sup>2)</sup> , GCC <sup>3)</sup>
	양자간	노르웨이, 스리랑카, 이스라엘, 모리셔스, 몰도바, 싱가포르(개선협상), 뉴질랜드(개선협상),
검토중(6건)	양자간	인도, 콜롬비아, 네팔, 캐나다, 몽골, 파나마

## ■ 중국 통관·통상환경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OECD Trade Facilitation

1) ASEAN 10개국과 중국간의 FTA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ASEAN 10개국과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3) 걸프협력회의의(GCC)

## 한-중국 FTA의 개관

### 1. 추진경과

-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국 FTA는 2018년 현재 4년차에 접어듦



### 2. 체결 의의

-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한-중국 FTA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경쟁국보다 빠르게 선점
- 중국내 우리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국내 진출한 2만 6천개 우리기업(누적기준 570억 달러)과 80만명에 달하는 在中 한국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
- 한-중국 FTA를 통해 넓어진 세계 경제영도 비중
  -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도는 GDP 기준 77%로 확대(한국은 전 세계 52개국과 FTA 체결)

### 3. 한-중국 FTA 협정문 구성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2. 상품 • 2-가 한국 관세영허표 • 2-가 중국 관세영허표	8. 서비스 • 8-가-1 중국 양허표 • 8-가-2 한국 양허표	13. 전자상거래	1. 최초규정 및 정의
3.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 3-가 품목별 원산지규정	9. 금융	14. 경쟁	19. 제도규정
4.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0. 통신	15. 지식재산권	20. 분쟁해결
5. SPS(위생·검역)	11. 자연인의 이동	16. 환경과 무역	21. 예외
6.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2. 투자	17. 경제협력	22. 최종규정
7. 무역구제		18. 투명성	

### 4. 한-중국 FTA 발효,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

- 양국 모두 FTA 혜택품목의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 실현

- 수출증가율 : 혜택품목(19.2%) > 비혜택품목(12.6%)
- 수입증가율 : 혜택품목(14.2%) > 비혜택품목(12.1%)

- 교역 증가로 양국 모두 상대국內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수입시장 점유율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		중국의 한국시장 점유율	
한국	9.8%	중국	20.4%
일본	9.3%	EU	11.9%
대만	8.6%	일본	11.6%
미국	8.3%	미국	10.7%

-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중 교역 의존도는 하락세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중국 비중 2014년 21.4% → 2015년 23.6% → 2016년 23.4% → 2017년 22.8%
- 대중국 주요 수출 상위 5대 품목인 집적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자동차부품의 비중은 점차 상승
  - Top 5 비중 2013년 42.6% → 2015년 45.4% → 2017년 7월 48.5%

※ 자료 :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5. 한-중국 FTA 수출 활용률

- 우리 수출기업의 對중국 FTA 수출활용률은 2017년 말 기준 49.7%로 증가
  - 발효 9년차에 42.5%에 진입한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 보다 한-중국 FTA의 수출활용률이 빠르게 증가

구분	2015	2016	2017
한-중 FTA	-	33.9	49.7
한-아세안 FTA	42.5	52.3	46.1
전체 FTA	71.9	63.8	66.4

※ 자료 :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한-중국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 한-중국 FTA 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 ❶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중국)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❷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❸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❹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 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 ❺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한-중국 FTA 활용 단계별 순서



##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 1.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충족을 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일반적으로 HS코드 6단위별로 그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 2.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이 정하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농축수산물이나 광산물에 주로 적용된다.

### 3.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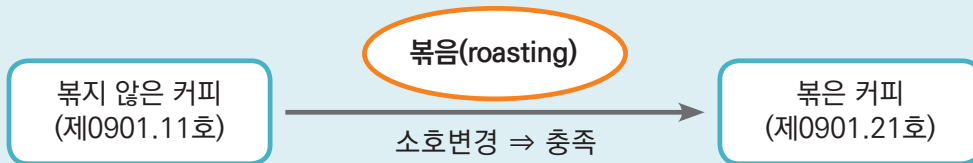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될 때,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류, Chapter)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호, 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소호, Sub-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사례 〉

- 볶은 커피(제0901.21호)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역외산 제0901.11호의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0901.21호의 볶은 커피를 생산한 경우, 6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 4.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계산방법에는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집적법(BU,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등이 있다.

### 〈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사례 〉

- 가정용 믹서기(제8509.40호)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완제품 FOB 가격	₩35,000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RVC40) 선택
------------	---------	---------	------------------

### 〈원재료 명세 및 가격구성표〉

NO.	재료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모터 ASS'Y	8501.10	₩15,000	1 EA	₩15,000	일본(역외산)
2	본체 케이스	8509.90	₩3,000	1 EA	₩3,000	한국

NO.	재료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가격	원산지
3	PCB	8534.00	₩300	2 EA	₩600	미국(역외산)
4	커터	8208.30	₩200	1 EA	₩200	일본(역외산)
5	컵 ASS'Y	8509.90	₩7,000	1 EA	₩7,000	한국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공제법)} =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text{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 \frac{35,000 - 15,800(15,000+600+200)}{35,000} \times 100 = 54.86\%$$

본선인도가격(FOB)은 ₩35,000, 비원산지재료비는 ₩15,800으로 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54.86%)가 발생했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 5. 가공공정기준 (SP,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협정에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이고 주로 섬유류나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 6. 선택기준 및 조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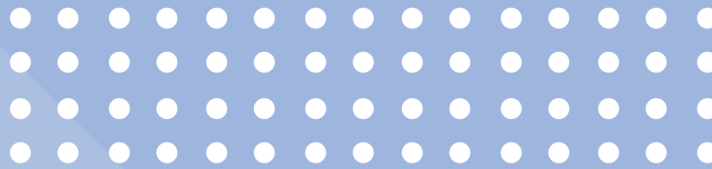
선택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조합 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 제 I 장

## 한-중국 FTA 활용품목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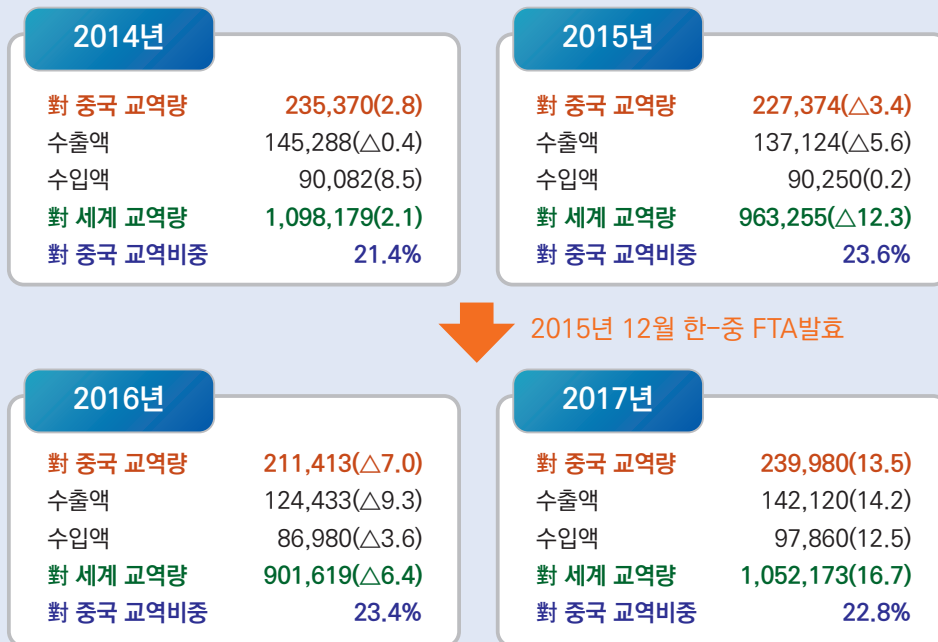
- 제1절 한-중국 FTA발효 전후 對중국 교역량 비교
- 제2절 한-중국 FTA 활용현황 및 활용품목 추천
- 제3절 류(HS2단위)별 활용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제4절 류(HS2단위)별 한-중국 FTA 양허품목의 APTA 활용실익 분석



## 제1절 한-중국 FTA발효 전후 對중국 교역량 비교

## ■ 2015년 12월 한-중 FTA발효 후 對중국 교역량 및 교역비중 증대

(단위 : 백만 달러,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 한-중 FTA 발효후 2017년까지 한국의 對중국 교역량 및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았음

- 對중국 교역비중: 2014(21.4%) → 2015(23.6%) → 2016(23.4%) → 2017(22.8%)

## ● 2018년 상반기, 한-중 간 관계 개선에 따라 對중국 수출입이 큰 폭 증가

- 한-중 정상회담 등의 노력으로 2018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한 1,311억 달러, 무역흑자는 274억 달러를 달성함

## ■ 2017년 한국의 한-중 FTA활용 산업별 수출 현황

한-중 FTA	산업분류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수출활용률*	수출미화금액
	전자전기제품	2,468	5,757	42.90%	73,182
	화학공업제품	5,546	9,526	58.20%	28,347
	기계류	2,789	6,018	46.30%	19,297
	철강금속제품	1,640	3,540	46.30%	7,022
	광산물	767	1,285	59.70%	6,86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82	907	53.10%	2,893
	섬유류	558	1,495	37.30%	1,968
	생활용품	259	648	40.00%	1,296
	농림수산물	210	406	51.60%	1,176
	잡제품	10	57	17.70%	72
	합계	14,728	29,639	49.70%	142,121

\* 수출활용률이란 (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임

### ● 한국의 對중국 주력수출 산업은 전기전자제품, 화학공업, 기계류 (MTI 1단위 기준)

- 전기전자제품 : 집적회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 화학공업제품 :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기초분유 등
- 기계류 :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 ● FTA 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화학공업제품, 수출활용률은 58.2%

-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출활용률 58.2%로 평균 수출활용률 49.7%를 상회
- 한편,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철강금속 제품은 특혜대상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활용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제2절 한-중국 FTA 활용현황 및 활용품목 추천

### ■ 한국의 한-중 FTA 활용 '류'별(HS2단위) 수출현황

- 발효 3년차인 2017년 기준 한-중 FTA 활용 수출과 관련해, 다음의 표는 HS 2단위 '류'를 중심으로 FTA 활용가능금액 상위 30개 '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단위: 백만 달러)

2017년 FTA 활용가능금액 기준순위	HS(2)	HS코드 2단위(류) 설명	2017년 FTA 활용 가능금액	2017년 FTA 활용률
1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3,423	53.63%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101	62.12%
3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687	67.45%
4	29	유기화합품	5,539	78.51%
5	28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 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3,906	75.92%
6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 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100	31.37%
7	73	철강의 제품	2,069	63.25%
8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1,748	50.79%
9	72	철강	1,343	59.04%
10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1,309	62.44%
1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248	52.81%
12	40	고무와 그 제품	1,191	81.27%
13	74	구리와 그 제품	1,102	52.85%
14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1,070	69.04%
15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024	79.63%

2017년 FTA 활용가능금액 기준순위	HS(2)	HS코드 2단위(류) 설명	2017년 FTA 활용 가능금액	2017년 FTA 활용률
16	32	유연용 ·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 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1,001	48.99%
17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900	50.95%
18	70	유리와 유리제품	872	60.08%
19	94	가구,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 ·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847	66.78%
20	69	도자제품	770	46.10%
21	03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691	76.43%
22	95	완구 · 게임용구 ·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690	65.28%
23	83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607	69.66%
24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552	32.44%
25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26	69.60%
26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510	48.85%
27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06	48.64%
28	68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479	67.03%
29	82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공구 · 도구 · 칼붙이 · 스푼 · 포크, 이들의 부분품	443	57.60%
30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441	74.36%
종합			61,695	61.04%

FTA 활용률이 평균 수출활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류'

## ■ 한-중 FTA ‘류’별 활용품목 선정 및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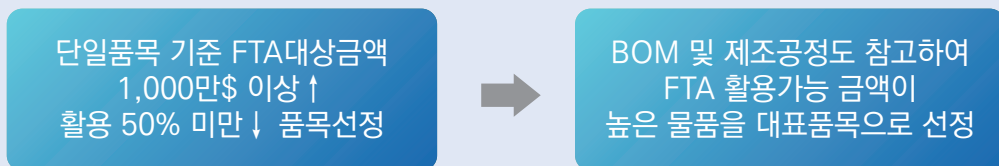
### ● 선정 및 정보제공 방법



- ① FTA활용 수출상위 30개 ‘류’의 평균활용률 61.04%에 미치지 못하는 활용률저조 14개 ‘류’를 선정하고, 해당‘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본다.
- ② 해당 ‘류’ 안에서 FTA활용 대표품목\*을 선정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③ 마지막으로 FTA활용 수출상위 30개 ‘류’를 대상으로 한-중 FTA 대비 APTA에서 활용실익이 있는 품목을 분석한다.

### ● 한-중 FTA활용 ‘류’별 대표품목 선정방법

- ① 해당 류에 포함되는 HSK10단위 단일품목 기준 FTA 대상금액 1,000만\$ 이상이면서 활용률이 50% 미만인 물품을 선정한다.
- ② 선정된 품목 가운데 해당물품의 표준적인 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 파악이 가능한 품목 중 FTA 활용가능금액이 높은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현황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공한다.



\* 단, 제27류, 제74류, 제32류, 제37류, 제54류, 제82류의 경우 MFN세율과 특혜세율의 차이가 미비하여 활용품목에서 제외함.  
또한, 제69류는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공정 관련 자료 부족으로 표준적인 제조공정 파악이 어려움

## 제3절 류(HS2단위)별 활용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 제85류

##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제8501호~제8504호/제8505.20호/ 제8505.90호/ 제8508.11호~제8508.60호/ 제8508.70호/제8509.90호/ 제8510.90호/제8511호/제8512.90호/ 제8515.11호~제8515.80호/ 제8516.90호/제8517.70호/ 제8518.90호/제8519호/ 제8521호~제8523호/ 제8525호~제8531호/제8535호/ 제8536.10호~제8536.50호/ 제8537.20호/제8538호/제8540.99호/ 제8541.90호/제8542호~제8547호/ 제8533.10호~제8533.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8505.11호/제8505.19호/ 제8506.10호~제8506.40호/ 제8507.10호~제8507.80호/ 제8514.10호~제8514.40호/ 제8532.10호~제8532.30호/ 제8540.11호~제8540.89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제8506.50호/제8506.90호/ 제8507.90호/제8512.10호/ 제8512.20호/제8513호/제8514.90호/ 제8515.90호/제8532.90호/ 제8533.90호/제8534호/ 제8536.61호~제8536.90호/제8539호/ 제8540.91호/제8548.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소재부품장비	주요 원재료	8538		90	배전반용 보드			
		8536		90	커넥터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재료입고 - 사출성형 - 검사 및 포장			
		①	원재료입고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출기 내로 입고			
		②	사출성형		공급된 원재료를 성형을 통해 제품화 하는 공정			
	③	검사 및 포장		완제품 검사 및 포장				
제8538.90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 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1억8천만\$	15.2%	7%	0%	7%	0%	
제8538.9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7%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0%가 적용되어, 한중 FTA활용 시 7%의 세율혜택을 누릴 수 있다.				
		CTH or RVC(40)		제8538.90호로 분류되는 커넥터 터미널이란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제8538.90호 수출시 한-중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 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커넥터용터미널 생산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충족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하자.				
				만약 업체가 커넥터용 터미널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알루미늄 판을 사출기에 입고하여 사출성형을 한 후 너트, 전선 등의 원재료와의 제품화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재료인 배전반용 보드의 4단위 세 번(8538)과 완제품인 커넥터용 터미널의 4단위 세번(8538)이 동일하여 해당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배전반용 보드가 역내산(KR)이라면, 수출(혹은 생산)업체는 원재료의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해야한다. 그러나 원재료가 역외산이라면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인 CTH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최소허용기준 충족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혹시 해당 원재료가 최소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제90류

###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9001호~9012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9013.10호/제9013.2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9013.80호/제9013.90호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5)
제9014호~제9031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9032.10호/제9032.20호 제9032.81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9032.89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RVC(50)
제9032.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9033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메카트로닉스

			산업	광학기기			
			상품명	광학렌즈 부품 : 카메라 렌즈			
			품 명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11	카메라용·영상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품명				
	9001	90	렌즈				
	7616	99	알루미늄 부품 (스크루 · 볼트 · 너트 등)				
	7014	00	유리로 만든 렌즈 부품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재료 입고 - 사출성형 - 조립 - 검사 및 출하				
	①	원재료입고	원재료 입고 및 건조시키는 공정				
	②	사출성형	사출기를 통해 렌즈를 성형하는 공정				



주요 제조과정	③	조립	렌즈 및 틀을 조립하여 본딩하는 공정			
	④	검사 및 출하	완제품을 검품하고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			
제9002.11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 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억3,479만\$	13.71%	15%	12%	15%	11%
제9002.11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11%가 적용되고 있다.			
	CTH		제9002.11호로 분류되는 광학렌즈 부품 중 카메라렌즈는, 렌즈와 알루미늄 및 유리부품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본 물품을 수출시 한-중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해 볼 때, 파악된 주요 원재료에는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을 가지는 물품이 없으므로, 만약 본 상품이 한국 내에서 사출성형, 조립 등의 주요 제조공정을 수행할 경우라면 무리 없이 주어진 원산지결정기준 (CTH)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제72류

###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201호~제7203호/ 제7205호~제7206호/제7210호/ 제7212호~제7214호/ 제7216호~제7218호/ 제7221호~제7224호/제7225.50호/ 제7225.91호~제7225.99호/ 제7226.92호/제7226.99호/ 제7227호/제7229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면세면허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자재입고- 원재료 절단- 압연 및 열처리- 라벨링 및 출하			
		①	자재입고	원재료를 입고하여 원재료 사양 및 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②	원재료절단	허용 기준에 맞춰 원재료 절단하는 공정			
		③	압연 및 열처리	압연 및 고주파로 열처리하는 공정			
		④	라벨링 및 출하	라벨링 작업 및 규격에 맞는 박스에 포장하여 검사			
제7220.20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 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8,3,32만\$	4,7%	10%	7%	10%	6%
제7220.2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0%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6%가 적용되고 있다.				
	CTH (ex. 7218 or 7219)		제7220.20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냉연코일은 원재료인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을 주요 제조공정인 절단, 압연 및 열처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이다. 본 물품을 수출시 한-중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7218호 또는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충족해야 한다.				
			완제품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7220.2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호에 대한 한-중 FTA에서 제시된 세번변경기준 단서조항에서 제7219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이 역내산이어야 하며, 수출자가 해당 원재료를 직접생산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 생산·제공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령 받아 제출해야 한다.			


## ■ 제76류

###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601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7602호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제7603호 ~제7604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7605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76.04)
제7606호~제7608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7609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76.08)
제7610호~제7613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7614.1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제7614.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ex. 76.05)
제7615호~제7616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비밀번호

		산업	알루미늄			
		상품명	롤러선반			
		품명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99	기타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품명			
	7604	29	알루미늄			
	3926	90	플라스틱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사출 - 조립 - 검품 및 포장			
	①	사출공정	플라스틱 사출공정 및 필요 사이즈로 플라스틱 받침대 절단			
	②	조립공정	플라스틱 롤러와 받침대, 알루미늄 연결대 등을 조립			


		③	검품 및 포장	검품 및 박스 포장			
제7616.99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1억 8,796만\$	24%	15%	10.5%	15%	9%	
제7616.99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5%가 낮아진 9%가 적용되고 있다.				
	CTH		제7616.99호로 분류되는 알루미늄 롤러선반은 알루미늄 선반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러 및 받침대를 설치한 것으로, 상품을 앞에서 꺼내면 뒷 상품이 자동으로 앞으로 밀려 내려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  우선 롤러선반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만약 업체가 롤러선반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알루미늄 선반(제7604.2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러와 받침대(제3926.90호)를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들과 완제품은 모두 서로 다른 4단위 세번에 포함되어 있어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만을 통해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 ■ 제62류

###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2류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li> <li>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li> </ol>	CC or RVC(40)

##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매출증명서			산업	섬유			
			상품명	의류 고정용 밴드			
			품명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0	부분품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2	62	폴리에스테르			
		5401	10	합성필라멘트			
		5402	44	탄성사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과정도		나름 - 통경 - 도안 - 시직 - 생산 및 염색 - 가공·롤링			
		①	나름	원사를 빔에 감는 작업			
		②	통경	실(원사)를 하나씩 기계에 끼우는 작업			
		③	도안	글자 및 모양 등을 CAD로 도안하는 과정			
		④	시직	처음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			
		⑤	생산 및 염색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원하는 컬러로 염색하는 과정			
		⑥	가공 및 롤링	제품의 구김을 펴주는 과정으로 제품 완성 및 롤링작업			
제6217.90호 한-중 FTA활용현황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569만\$	16.8%	14%	11.2%	14%	10.2%
제6217.9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4%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10.2%가 적용되고 있다.			
		CC or RVC(40)		본물품은 주로 아웃도어 하의에 해당하는 바지에 부착하는 고정용 밴드로 탄성이 있는 직물제 밴드이다. 주로 등에서 교차하여 어깨로 이어져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6217.90호 한-중 FTA활용방안	CC or RVC(40)	<p>제6217.90호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의류 고정용밴드를 생산하는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만약 업체가 의류 고정용밴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및 탄성사를 입고·재직하여 직접 가공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및 탄성사 2단위 세번(제54류))과 완제품인 고정용 밴드의 2단위 세번(제62류)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p>제6217.90호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둘 중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원산지충족이 용이한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고려하여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별한다.</p> <p>※ 주의 : 해당물품은 한-중 FTA이외에도 APTA적용 대상 이면서 APTA의 세율이 2018년 9.1%로 한-중 FTA 협정세율 10.2%보다 더 낮다. 따라서 본 물품은 현재에는 세율적인 측면에서 한-중 FTA보다는 AP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APTA의 경우 한-중 FTA와 달리 해당물품에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p> <p>* APTA의 원산지결정기준 :</p> $\frac{\text{원산지 미상} + \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FOB 가격}} \times 100 \leq 55$ <p>또한 한-중 FTA양허스케줄에 따라 본 물품은 매년 1%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2019년은 9.2%, 2020년은 8.2%의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품목의 APTA 세율이 추가로 인하되지 않는 한 2020년에는 한-중 FTA세율이 APTA 세율보다 낮게 된다.</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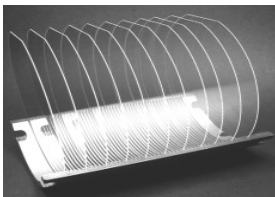


## ■ 제70류

###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7001호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제7002호~제702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메메메메			산업		유리제의 기타제품			
			상품명		석영유리 (Quartz Glass)			
			품 명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7006	00	QUARTZ DISK				
				또는				
		7002	10	QUARTZ DISK				
			20	QUARTZ ROAD				
				또는				
		7002	31	QUARTZ BLOCK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자재입고 - 슬라이싱 - 연삭가공 - 클리닝 - 검사 및 출하			
			①	원자재입고	원재료 입고			
			②	슬라이싱	절단공정			
			③	연삭가공	표면을 갈아 연삭하는 공정			
			④	클리닝	세척 공정			
			⑤	검사 및 출하	불량품 검수 및 완제품 포장 후 출하			
제7020.00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3,205만\$	9.4%	15%	10.5%	15%


제7020.0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5%가 낮아진 9%가 적용되고 있다.
	CTH	<p>제7020.00호 석영유리는 순수한 규산광물인 석영(Quartz)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상의 웨이퍼(wafer)를 운반하는 기구이다.</p> <p>제7020.00호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그럼, 석영유리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과 주요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자.</p> <p>만약, 업체가 석영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Quartz Disk(제7006.00호) 및 Quartz Block(제7002.10호/제7002.31호)등을 슬라이싱 및 연삭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재료들과 완제품인 석영유리(Quartz Glass)와의 4단위 세 번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 ■ 제42류

###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div> <div></div> <div>미세버전</div> </div>		산업	신변잡화		
		상품명	핸드백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



제4202.22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p>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7월 이전 10%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이후에는 6%의 MFN 세율을 부과중이다.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6%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7월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해당물품은 FTA특혜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따라 특혜세율이 다시 5%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MFN세율이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는 한 본물품은 다시 FTA특혜대상이 된다.</p> <p>제4202.22호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핸드백을 만드는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제4202호에 분류되는 핸드백은 제5903호에 분류되는 가죽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9607호에 분류되는 슬라이더 등을 사용하여 「원재료재단 - 배열 - 봉제 - 검품 및·포장」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p> <p>만약 업체가 핸드백을 생산하기 위한 가죽(제5903호)을 입고하여 직접 가죽으로 핸드백을 생산하는 공정을 거쳤을 경우, 원재료인 가죽(제5903호)과 완제품인 핸드백인 4단위 세번(제4202호)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p>또한 기타 원재료들과 완제품의 품목번호도 4단위 세번이 모두 다른 위와 같은 경우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CTH	

## 제4절 류(HS2단위)별 한-중국 FTA 양허품목의 APTA 활용실익 분석

- 對중국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세율을 확인하기에 앞서 MFN 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품목에 적용중인 APTA 세율과 ITA 세율,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잠정세율을 추가 확인해야함<sup>4)</sup>
- 아래의 표는 류별(HS2단위) FTA 활용가능금액 상위 30개류의 한-중 FTA 세율과 APTA 세율을 비교하여, APTA 활용실익이 파악된 27개류의 세번을 분류함<sup>5)</sup>
  - 참고로 APTA 활용실익 세번으로 분류되었을지라도 잠정세율과 ITA 세율의 변동 가능성이 있고, 가격조건에 따라 한-중 FTA 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비교해 보아야함

### ■ 제85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5류		한-중 FTA 양허품목		312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213	
		합계		525	
APTA 활용실익 세번					
8501.10.91 <sup>1)</sup>	8501.10.99 <sup>1)</sup>	8501.31.00	8501.53.00 <sup>1)</sup>	8502.13.10	8502.13.20
8503.00.10	8504.23.11	8504.40.20 <sup>2)</sup>	8504.90.11 <sup>2)</sup>	8504.90.19 <sup>2)</sup>	8504.90.20 <sup>2)</sup>
8504.90.90 <sup>1)2)</sup>	8505.20.00	8507.10.00	8507.60.00	8512.30.11	8512.30.12
8512.30.19	8515.29.00	8517.70.40 <sup>2)</sup>	8519.20.00	8519.81.19 <sup>2)</sup>	8519.81.21 <sup>2)</sup>

4) 최혜국(MFN)세율(WTO 회원국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 APTA세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잠정세율(중국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 ITA 세율(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관세율)

5) 관세인하방식의 차이로 특혜관세율 측면에서 단기에는 APTA가, 장기에는 FTA가 유리한 품목이 존재할 수 있음

APTA 활용실익 세번					
8519.81.29 <sup>2)</sup>	8519.81.39 <sup>2)</sup>	8519.89.90 <sup>2)</sup>	8521.10.11 <sup>2)3)</sup>	8521.10.19 <sup>2)3)</sup>	8521.10.20 <sup>2)3)</sup>
8521.90.11 <sup>2)</sup>	8521.90.12 <sup>2)</sup>	8521.90.19 <sup>2)</sup>	8521.90.90 <sup>2)</sup>	8522.90.10 <sup>2)</sup>	8522.90.21 <sup>2)</sup>
8522.90.22 <sup>2)</sup>	8522.90.23 <sup>2)</sup>	8522.90.29 <sup>2)</sup>	8522.90.31 <sup>1)2)</sup>	8522.90.39 <sup>1)2)</sup>	8522.90.91 <sup>2)</sup>
8522.90.99 <sup>1)2)</sup>	8525.80.13 <sup>1)2)3)</sup>	8528.49.10 <sup>2)</sup>	8528.49.90 <sup>2)</sup>	8528.52.12	8528.52.92
8528.59.10 <sup>1)</sup>	8528.62.20	8528.69.10	8528.72.22	8528.72.39	8529.90.41 <sup>2)</sup>
8529.90.82 <sup>1)2)</sup>	8535.90.00	8537.10.11 <sup>1)</sup>	8537.10.19 <sup>1)</sup>	8537.10.90 <sup>1)</sup>	8537.20.10
8537.20.90	8538.10.10 <sup>2)</sup>	8538.10.90 <sup>2)</sup>	8542.31.19 <sup>2)</sup>	8542.32.10 <sup>2)</sup>	8542.33.10 <sup>2)</sup>
8542.39.10 <sup>2)</sup>	8544.11.00 <sup>1)</sup>	8544.49.21	8544.60.19	8544.60.90 <sup>1)</sup>	

주 : 1) 잠정세율 2) ITA세율 3) 한-중 FTA 세율(가격조건에 따라 FTA 세율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추가 확인 필요

## ■ 제84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4류		한-중 FTA 양허품목		787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230	
		합계		1017	
APTA 활용실익 세번					
8402.12.00	8404.10.20 <sup>1)</sup>	8404.90.10 <sup>1)</sup>	8404.90.90 <sup>1)</sup>	8407.34.10	8407.34.20
8408.10.00	8408.20.10 <sup>1)</sup>	8408.20.90 <sup>1)</sup>	8408.90.91	8408.90.93	8409.91.10
8409.91.91	8409.99.10	8409.99.99 <sup>1)</sup>	8411.12.10	8414.30.11	8414.30.12
8414.30.19	8414.30.90	8414.51.10	8414.80.30 <sup>1)</sup>	8418.61.90	8419.39.90 <sup>1)</sup>
8421.21.10 <sup>1)</sup>	8421.21.91	8421.21.99 <sup>1)</sup>	8421.39.10 <sup>1)</sup>	8421.39.24 <sup>2)</sup>	8421.39.29 <sup>2)</sup>
8421.39.30 <sup>1)2)</sup>	8426.19.10	8426.19.21	8426.19.29	8426.19.30	8426.19.41
8426.19.42	8426.19.43	8426.19.49	8426.19.90	8426.41.10	8426.49.10
8426.49.90	8428.33.00	8428.39.10	8429.52.11	8429.52.19	8429.52.90
8431.20.10	8431.20.90 <sup>1)</sup>	8431.39.00	8431.49.20	8431.49.99	8432.31.39
8432.39.39	8433.51.00 <sup>1)</sup>	8437.80.00	8439.99.00	8441.30.90	8443.17.00 <sup>1)</sup>
8443.32.22 <sup>2)</sup>	8443.32.29 <sup>2)</sup>	8443.39.39 <sup>2)</sup>	8445.40.90	8445.90.90	8447.90.90
8450.11.20	8450.90.10	8451.10.00	8452.10.10	8452.10.91	8452.10.99

APTA 활용실익 세번					
8454.30.90	8457.10.10	8457.10.20	8457.10.30	8457.10.91	8457.10.99
8459.69.90	8462.10.10	8462.10.90	8462.91.10	8462.91.90	8474.80.20
8477.59.10	8477.59.90	8480.41.10	8480.41.20	8480.41.90	8480.49.00
8481.80.21	8481.80.29	8481.80.31	8481.80.39	8482.80.00	8483.10.11
8483.10.19	8483.10.90	8483.40.20	8483.40.90	8486.40.21 <sup>2)</sup>	8486.40.39 <sup>2)</sup>

주 : 1) 잠정세율 2) ITA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39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9류		한-중 FTA 양허품목		153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14	
		합계		167	
APTA 활용실익 세번					
3901.10.00 <sup>1)</sup>	3901.20.00 <sup>1)</sup>	3901.30.00	3901.40.90	3901.90.90	3902.30.90
3903.11.00	3904.10.10	3904.10.90	3904.40.00	3906.10.00	3906.90.10
3907.99.10	3911.10.00	3917.39.00	3919.90.10	3919.90.90	3920.10.90
3920.49.00	3920.61.00	3920.62.00	3920.69.00	3921.13.10	3921.19.10
3921.19.90	3921.90.90 <sup>1)2)</sup>	3923.10.00 <sup>2)</sup>	3923.40.00	3923.90.00	

주 : 1) 잠정세율 2) ITA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29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9류	한-중 FTA 양허품목	548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28
	합계	576
APTA 활용실익 세번		
2902.50.00		

## ■ 제28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8류	한-중 FTA 양허품목	312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1
	합계	313
APTA 활용실익 세번		
2803.00.00		2850.00.90

## ■ 제90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0류	한-중 FTA 양허품목	204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55
	합계	259
APTA 활용실익 세번		
9001.10.00	9001.90.10 <sup>2)</sup>	9001.90.90 <sup>1)2)</sup>
9010.50.21 <sup>2)</sup>	9014.20.10 <sup>2)</sup>	9015.80.00 <sup>2)</sup>
9022.12.00 <sup>2)</sup>	9024.10.10 <sup>2)</sup>	9024.10.20 <sup>2)</sup>
9031.80.32 <sup>2)</sup>	9031.80.33 <sup>1)2)</sup>	9032.81.00 <sup>2)</sup>
9002.20.10 <sup>2)</sup>	9002.20.90 <sup>2)</sup>	9006.59.90
9018.12.91 <sup>2)</sup>	9018.12.99 <sup>2)</sup>	9018.50.00 <sup>2)</sup>
9024.10.90 <sup>2)</sup>	9031.80.10 <sup>2)</sup>	9031.80.31 <sup>2)</sup>

주 : 1) 잠정세율 2) ITA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73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3류	한-중 FTA 양허품목	153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15
	합계	168
APTA 활용실익 세번		
7318.15.10	7318.15.90	7321.81.00
		7325.99.90
		7326.20.10



## ■ 제27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27류	한-중 FTA 양허품목	61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6
	합계	67
APTA 활용실익 세번		
2713.20.00		

## ■ 제72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2류	한-중 FTA 양허품목	191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27
	합계	218
APTA 활용실익 세번		
7209.16.90	7209.17.10	7209.18.10 <sup>1)</sup>
7217.30.10	7221.00.00	7222.11.00
		7222.19.00
		7222.30.00
		7214.20.00
		7225.11.00

주 : 1) 잠정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87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7류	한-중 FTA 양허품목	232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94
	합계	326
APTA 활용실익 세번		
8703.22.30	8703.23.41	8703.23.42
8703.23.53	8703.23.61	8703.23.63
8703.32.12	8703.32.13	8703.32.23
		8703.33.12
		8703.40.21
		8703.23.51
		8703.23.52
		8703.24.11
		8703.24.12
		8703.24.21
		8703.40.31

APTA 활용실익 세번					
8703.40.32	8703.40.33	8703.40.41	8703.40.42	8703.40.43	8703.40.51
8703.40.53	8703.40.61	8703.40.62	8703.40.71	8703.40.90	8703.50.32
8703.50.33	8703.50.43	8703.50.52	8703.50.90	8703.70.00	8703.80.00
8703.90.00	8708.29.41	8708.29.90	8708.30.29	8708.50.72	8708.50.79
8708.95.00	8711.30.10	8711.30.20			

## ■ 제76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6류	한-중 FTA 양허품목		52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1
	합계		53
APTA 활용실익 세번			
7604.29.10	7606.11.29 <sup>1)</sup>	7606.12.20	7606.12.30
7606.12.59	7607.11.10	7616.99.10	

주 : 1) 잠정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40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0류		한-중 FTA 양허품목		108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64	
		합계		172	
APTA 활용실익 세번					
4002.19.90	4002.31.10	4002.31.90	4002.39.90	4002.49.90	
4002.51.00	4002.60.90	4011.10.00	4011.20.00 <sup>1)</sup>	4017.00.10	

주 : 1) 잠정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74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4류	한-중 FTA 양허품목	77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3
	합계	80
APTA 활용실익 세번		
7419.99.50		7419.99.99

## ■ 제61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1류	한-중 FTA 양허품목	132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0
	합계	132
APTA 활용실익 세번		
6101.90.10	6102.10.00	6102.90.00
6103.10.10	6103.10.20	6103.22.00
6103.23.00	6103.29.10	6103.29.90
6104.13.00	6104.23.00	6110.30.00
6115.10.00	6117.90.00	

## ■ 제38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8류	한-중 FTA 양허품목	115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3
	합계	118
APTA 활용실익 세번		
3808.91.11	3824.84.00	3824.85.00
3824.86.00	3824.87.00	3824.88.00
3824.91.00	3824.99.93	3824.99.99 <sup>1)</sup>
		3826.00.00

주: 1) 잠정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62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2류	한-중 FTA 양허품목	167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0
	합계	167
APTA 활용실익 세번		
6204.23.00	6204.29.10	6204.33.00 6204.43.00 6205.20.00 6217.90.00

## ■ 제70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70류	한-중 FTA 양허품목	83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5
	합계	88
APTA 활용실익 세번		
7016.90.10		7019.59.00

## ■ 제94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4류	한-중 FTA 양허품목	25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38
	합계	63
APTA 활용실익 세번		
9404.29.00		

## ■ 제69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9류	한-중 FTA 양허품목	39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0
	합계	39
APTA 활용실익 세번		
6911.90.00		

## ■ 제03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03류	한-중 FTA 양허품목	269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29
	합계	298
APTA 활용실익 세번		
0302.24.00 0302.29.00 0303.23.00 0303.43.00 0303.57.00 0303.59.00 <sup>1)</sup> 0303.67.00 <sup>1)</sup> 0303.83.00 0303.89.10 <sup>1)</sup> 0303.89.20 0303.89.30 0303.89.90 0305.61.00		

주 : 1) 잠정세율 추가 확인 필요

## ■ 제95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95류	한-중 FTA 양허품목	28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26
	합계	54
APTA 활용실익 세번		
9507.90.00		

## ■ 제37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37류		한-중 FTA 양허품목		45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17	
		합계		62	
APTA 활용실익 세번					
3701.10.00 <sup>1)</sup>	3701.30.22 <sup>2)3)</sup>	3701.30.90 <sup>2)</sup>	3702.10.00	3702.42.29 <sup>3)</sup>	
3702.42.92 <sup>1)3)</sup>	3702.42.99 <sup>3)</sup>	3702.43.21 <sup>3)</sup>	3702.43.29 <sup>3)</sup>	3702.43.90 <sup>3)</sup>	

주 : 1) 잠정세율 2) ITA세율 3) 한-중 FTA 세율(가격조건에 따라 FTA 세율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추가 확인 필요

## ■ 제55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5류		한-중 FTA 양허품목		130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5	
		합계		135	
APTA 활용실익 세번					
5501.30.00	5502.10.90	5502.90.00	5503.20.00	5510.11.00	
5513.11.10 <sup>3)</sup>	5513.11.20 <sup>3)</sup>	5513.19.00 <sup>3)</sup>	5516.22.00		

주 : 3) 한-중 FTA 세율(APTA 세율과 동일한 경우가 있음) 추가 확인 필요

## ■ 제42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42류		한-중 FTA 양허품목		25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1	
		합계		26	
APTA 활용실익 세번					
4201.00.00	4202.12.10	4202.29.00	4202.39.00	4203.21.00	

## ■ 제54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54류		한-중 FTA 양허품목		99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14		
		합계		113		
APTA 활용실익 세번						
5402.32.90	5402.45.10	5402.45.20	5402.45.30	5402.45.90	5402.47.00	5402.51.30
5407.42.00	5407.52.00	5407.61.00	5407.69.00	5407.72.00	5408.32.00	

## ■ 제68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68류	한-중 FTA 양허품목	71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6
	합계	77
APTA 활용실익 세번		
6802.10.10	6802.10.90	6802.21.20
6802.21.90	6802.93.19	

## ■ 제82류

HS 2단위	활용실익	HS 8단위품목수
제82류	한-중 FTA 양허품목	76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6
	합계	82
APTA 활용실익 세번		
8207.80.10	8207.80.90	8207.90.10
8207.90.90	8209.00.30	

# 제Ⅱ장

## 중국의 통관 법제도

제1절 통관 조직 및 절차

제2절 최근 통관 법제도 이슈

제3절 인증제도

제4절 라벨링제도





## 제1절 통관 조직 및 절차

### ■ 중국해관

#### ● 중국의 관세행정 중앙조직

- 중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국의 통관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기관
- 해관의 주요기능은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화물·여행자휴대품·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의 감독 및 관리,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단속, 해관통계 작성, 항만 관리, 보세작업 관리, 지적재산관의 관세집행 및 국제세관 협력 등임
- 2018년 8월부터 한-중 FTA 관련 중국측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이 질검총국(AQSIQ)에서 중국해관총서(GACC)로 변경
  - ❖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은 중국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 조직체계

- 중국해관은 19개 부서, 6개 북경직속기관, 4개 사회단체, 3개 외국주재기관으로 구성
- 전국해관은 총 42개 직속해관이 있으며, 742개 예속해관 및 출장소로 구성

#### ▶ 부서 및 주요 직속해관 현황 및 소관업무



##### 광둥분서

- 광둥분서는 해관총서의 파출기관, 직속해관을 지도
- 종합관리, 협조업무, 조사연구, 회계감사 감독 등의 업무 담당
- 분서 내 14개 부서, 간부 및 직원은 약 190여명



##### 북경해관

- 북경해관은 해관총서직속의 정국급 해관, 북경해관의 업무관할범위는 북경시
- 주요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기타법률, 법규에 근거한 북경지역 입출경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물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관세와 기타 세비 징수, 밀수조사, 해관통계작성 담당
- 관할구역하에 4개 직속해관 설립(수도공항해관, 중관촌해관, 북경경제기술개발구 해관, 천축해관), 9개 파출기구 및 21개 내부설립 기구
- 북경해관의 간부 및 직원은 약 1,800여명이며, 그 중 밀수경찰은 약 240여명



### 상해해관

- 상해해관은 국가가 상해항에 설립한 입출경 감독관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에 예속
- 주요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기타법률, 법규에 근거한 북경지역 입출경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물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관세와 기타 세비 징수, 밀수조사, 해관 통계작성 담당
- 52개 기구가 설립, 이 중 판공실, 법규처, 관세처 등 내부 업무부서는 18개, 상해무동 해관, 상해무동국제공항해관 등 17개 해관이 예속

## ■ 중국해관총서 조직도



## ■ 주요 국가기관

### ● 2018년 3월, 중국의 인증·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 개편

- 기존의 국가식품식약감독관리총국(CFDA),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S)으로 통합됨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리직책과 조직은 중국해관총서(GACC)로 귀속됨
- 의약품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식품식약감독관리총국(CFDA)을 대체할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을 설치하고, 총괄 관리는 SAMS가 담당함

####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中国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2018년 3월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 국무원 직속기구, SAMS(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Supervision)
- 공식 홈페이지(<http://samr.saic.gov.cn/>)

##### ▶ 기능

-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 시장주체에 대한 일괄登記, 정보공시 공유 시스템의 수립,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 집행
- 반독점법에 대한 법 집행
- 시장질서의 규범화와 보호
- 품질강국 전략 실시
- 공업제품의 품질안전, 식품안전
- 특수설비 안전의 감독관리 업무
- 통일적인 계량표준, 검사검측, 인증인가 업무

##### ▶ 조직

-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통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모니터링 검사와 반독점법 집행,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법 집행, 국무원의 반독점위원회 사무처 등의 업무를 통합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의 업무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S)으로 이관
-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폐지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을 신설하여, 화장품·의료기기·약품의 등록·감독관리 업무를 수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 CCPIT(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공식 홈페이지(<http://www.ccpit.org/>)

#### ▶ 기능

- 대외무역 진흥·외국의 선진기술 도입·투자 유치, 외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일반 및 특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 이 외 ATA Carnet 발급, 상사중재, 국제박람회·전시회 주관, 각종 상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수행

### 중국국가외환관리국(中国国家外汇管理局)



- 국무원 소속 기관, SAFE(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 공식 홈페이지(<http://www.safe.gov.cn/>)

#### ▶ 기능

- 중국인민은행이 관리하며, 수출입 외환관리통제 업무를 집행
- 국가 외환시장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
- 외환 결제 및 판매 감독 및 관리를 수행
- 외국환의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외환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 처벌

### 중국국가세무총국(中国国家税务总局)



- 국무원 소속 기관, SAT(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 공식 홈페이지(<http://www.chinatax.gov.cn/>)

#### ▶ 기능

- 세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며, 대외무역과 관련해 국제세무행정, 세금검사, 수출환급(수출퇴세) 관리 등을 수행
- 수출업체는 세제신용등급 및 준수기록에 따라 4개 범주로 분류되어 차별적으로 관리되는데, 신용 우수기업에게는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 통관절차

### ● 2017년 7월, 중국해관의 통관과정 변화

- (통관과정 변화) 통관전 '자진세금납부', 통관후 '수입신고 서류심사' 진행
- (납세과정 변화)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자진납세하고, 통관후에 수입신고 서류심사 진행

### ● 기업은 사전에 통관후 관세심사 감사 관련 수입신고 서류검사 준비

- 기업은 무역 관련 자료(계약서·영수증·운송증빙서류·보험증빙서류·지급증빙서류·회계장부·업무문서 등)의 관리·보관에 유의

#### ▶ 기존 수입통관 과정



#### ▶ 2017년 7월 이후 수입통관 과정



기업의 1회 자진신고 납세	3개 위험예방센터	3개 조세징수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자진신고, 자진납세, 세금계산서를 직접 출력</li> <li>- 기업은 세관 EDI센터에 입력시 세관 세금계산방식대로 예상세금 계산 → 시스템의 세금결과 확인 → 통관증과 함께 세관 제출</li> <li>- 기업은 세관의 회신접수 후 세금지급 → 서신 세금고지서가 필요하면 현장세관에서 신청 및 출력 → 출력된 세금고지서상 '자진납세' 글귀는 납세사실 증명이며 세관결정 확인은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위험예방센터는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에 위치</li> <li>- 위험예방센터는 수입물품의 금지규정 및 저작권 위반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신고, 안전사항 등을 분석해 조사를 지시</li> <li>- 현장 검사원이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조세징수관리센터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및 텐진 지역에 위치</li> <li>- 조세징수관리센터는 통관 완료 후 무작위로 세수징수요소 심사 대상 선별</li> <li>- 기업의 수입신고 서류심사, 과세가격평가, 원산지 확인 등 검증처리 진행</li> <li>- 특수 정황시 세관은 화물통관 완료 전 세수징수요소를 심사</li> <li>- 기업이 자진으로 세관 감독 규정을 어긴 행위를 서면보고시 처벌수준 완화 가능</li> </ul>

※ 이하 최근 통관 법제도 이슈 중 '전국세관 통관 일체화' 참고

## 제2절 최근 통관 법제도 이슈

### ■ 전국세관 통관 일체화, 세금징수 방식 변화

#### ● 중국, 전국세관 통관 일체화(通关一体化) 전면 실시

- 2017년 7월, 전국세관 통관 통합을 위해 개항장관리부서의 정보호환, 감독 상호인정, 법집행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2센터 3제도 구축하고 '전국 1관(전체 중국 하나의 세관)'을 실현
  - ❖ 2개 센터는 위험예방센터와 조세징수관리센터
  - ❖ 3개 제도는 '1회신고, 단계별처리(一次申报、分步处置)' 제도, 세금징수방식 개혁제도, 세관 감독기능 개혁제도

#### ● 통관의 원활화, 간편화 실현

- 자율적인 세관신고,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제도 마련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원하는 세관에서 수속 진행
- 세수징수에 대한 관리가 규격화되어 관할 해관에서 재량권 발휘가 어려워짐

#### ● 2개 센터(위험예방센터, 조세징수관리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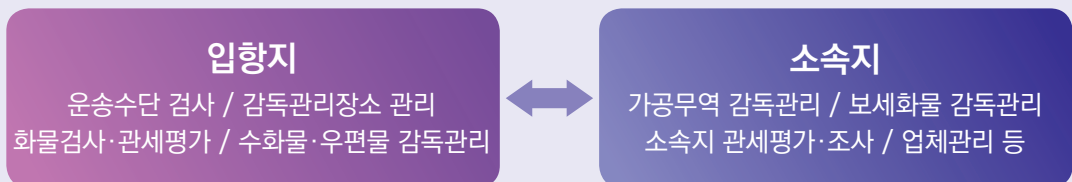
- 위험예방센터와 조세징수관리센터를 통해 위험관리와 세금징수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화되며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구축
  - ❖ 위험예방센터: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황푸)
  - ❖ 조세징수관리센터 :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톈진 → 품목과 업종별 분업 → 세금신고 정확성 검증, 해당물품의 분류·가격·원산지 등 징세 리스크 중점 관리 → 모든 항구, 모든 수입방식, 모든 수입상품에 적용

구분		관리 내용	
2개 센터	위험예방 센터	칭다오	해상운송 공급사슬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안전수입 리스크 통제 - 해운 화물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 저작권 침해 여부 -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상하이	항공운송 담당
		광저우(황푸)	육상운송, 홍콩/마카오 소선박

구분		관리 내용		
2개 센터	조세징수 관리센터	상하이	가전류(전기기계, 계량기기, 항공기 제외 교통수단류) 등 상품	세율규칙 총 8개 류 포함(제84~87류, 89~92류), 2,286개 세번
		광저우	화학공업류(화공 원료, 고분자, 에너지, 광산물, 금속류) 등 상품	세율규칙 총 30개 류 포함(제25~29류, 31~40류, 68~83류), 2,800개 세번
		베이징-톈진	농림업, 식품,약품, 경공업 제품, 방직류, 항공기계, 기타 등 상품	세율규칙 총 58개 류 포함(1~24류, 30류, 41~67류, 88류, 93~97류), 3,461개 세번

### ● 3개 제도(통관관리, 조세징수, 협동감독관리)

- 통관관리 혁신: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의 새로운 통관 관리 방식 적용
  - ❖ (1회 신고) 기업의 자진신고, 자진납세, 세금계산서 자진출력
  - ❖ (단계별 처리)
    - 1단계 위험예방센터 : 통관현장에서 리스크통제 검사 진행(수입 물품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브랜드명, 규격, 수량) 등 안전 수입 리스크를 분석해 조사지시를 내린 후 현장 검사원이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 2단계 조세징수관리센터 : 물품통관 후 리스크 심사대상을 선별해 무작위로 수입신고 서류심사(가격 심사, 제품 분류, 원산지 심사), 관세평가 등 업무를 진행
- 조세징수 관리방식 개혁 :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무작위 선별심사
  - ❖ 사전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기업이 스스로 관세를 계산, 자진납세
  - ❖ 통관후 무작위 수입신고 서류심사 : 통관후 리스크 심사대상 선별하여 무작위 수입신고 서류심사, 세금징수 요소 심사 진행
- 전국세관 통합제도 실시로 자율적인 세관신고,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제도 마련 → 우리 수출기업은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 납세 등 세관 수속 진행 가능
- 협동 감독관리 제도 : 해관총서, 직속세관, 예속세관의 협동
  - ❖ 입항지 세관, 소속지 세관의 기능 차별화 협동



## ■ 사전판정제도 시행

### ● 2018년 2월, 중국해관 사전판정제도 시행<sup>6)</sup>

- 사전판정제도는 화물 수출입 전에 중국해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출입 관련 해관업무와 관련해 사전결정을 내리는 제도
- 동일 화물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판정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수출입이 가능해 편리함
- 사전판정제도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며, 기존의 3종 사전심사를 통합  
(전) 3종 사전심사(품목분류·원산지·가격 사전심사제도), 행정사전판정제도 →  
(후) 사전판정제도, 행정사전판정제도
- ❖ 세계관세기구(WCO)의 '무역원활화협정'에 규정된 사전판정제도는 국제세관에서 통용되는 무역원활화 조치

### ● 사전판정제도와 행정사전판정제도

- 리스트관리센터와 세금징수관리센터를 통해 위험관리와 세금징수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화되며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구축

구분	공통점	차이점
사전 판정제도	- 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화물의 실제 수출입 전에 시행될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해관 업무를 결정 내림	- (판정기관) 직속 해관에서 판정 - (법률효력) 사전판정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가짐
행정사전 판정제도	- 해당 결정은 전국 해관에서 공통 적용	- (판정기관) 해관총서(GACC) - (법률효력) 신청인 외에 대외 무역업자 모두에게 구속력 가짐. 해관의 추상적 행정행위로 해관 규정과 동일한 효력

6) 중화인민공화국해관사전판정관리집정방법



## ● 사전판정제도 신청

구분	내용	기타 유의점
신청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화물의 품목분류</li> <li>- 원산지 및 원산자격</li> <li>- 세후가격 관련 요소 및 가격산정 방법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li> <li>- 해관총서에 규정된 기타 해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업무는 사전판정제도 활용 불가</li> </ul>
신청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수출 계약서, 의향서 등을 포함한 무역 거래 자료</li> <li>- 제품 명세서(제품의 형태, 사양, 기능, 작동 원리 및 상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li> <li>- 화학 제품인 경우 분자식, CAS번호, 구조식 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li> <li>- 제품 바코드(GTIN)가 있으면 함께 제출</li> <li>- 기타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곧 시행될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li> <li>- 제출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신청자는 중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li> </ul>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관에 등록된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무역업자</li> <li>- 즉, 해관에 등록된 수입화물 수취인 혹은 수출 화물 발송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기업이 사전판정제도 활용이 필요할 경우 중국내 대리기관을 통해 해관에 사전 판정 신청 가능</li> </ul>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3개월 전 해관에 신청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경우 수출입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li> </ul>

## ● 사전판정제도의 적용

구분	내용	기타 유의점
판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전자항구 해관사무연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해관 일체화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직속 해관에 사전판정 신청</li> <li>- 직속해관의 결정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해관에서 모두 적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속해관의 결정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해관에서 모두 적용 가능</li> </ul>
접수여부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정기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일 부터 10일내 접수여부를 심의결정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부적합하면 자료보완 관련 통지가 있음</li> </ul>
접수완료 후 판정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 검측 및 전문가 논증 등에 소요된 시간은 판정결정 시한에 미포함</li> </ul>

판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판정결정의 기한은 3년간 유효</li> <li>- 판정결과는 신청인 및 해관에 모두 구속력을 가짐</li> <li>- 판정결과는 신청인이 사전판정에 신청한 수출입 화물 및 유효기간내 수출입하는 기록과 동일한 화물에 대해 효력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내 사전판정에 의거하는 법률, 행정법규, 해관규약 및 해관 총서 공고에 변화가 생기면 이에 근거해 효력이 발생한 판정결과도 효력 상실</li> <li>- 판정결과는 이미 수출입이 진행된 화물에 대해 소급력 없음</li> </ul>
------	--	---

### ● 우리 수출기업이 유의할 점

구분	기타 유의점
신청기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화물 수출입 3개월 전에 해관에 신청서 제출</li> <li>- 특수한 경우 수출입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li> </ul>
유효기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정결과는 3년간 사용이 가능</li> <li>- 판정결과는 유효기간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규정</li> </ul>
사전판정결과 발효전 수출입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판정 결과는 발효 전 이미 수출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음</li> <li>- 해관의 사전판정 결과와 이전에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의 사찰 혹은 가격심사 등을 받을 위험이 있음</li> </ul>

## ■ 통관일체화 전산시스템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수입관세율 전산조회 가능

### ● 중국해관, 통관일체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인터넷+해관’ 운영

- 기업이 로그인하면 총 60항목의 해관업무를 전산으로 처리 가능한 서비스
- 해당 시스템은 업무를 크게 총 9종(운송수단, 화물통관, 물류통관, 세금업무, 가공무역 및 보세물류업무, 기업관리, 행정심사비준, 저작권법, 기타)으로 분류

### ●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전산조회 가능

- 중국해관은 수출입자 편리를 위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내국세율(소비세, 증치세)의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 ①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홈페이지 접속 및 세율조회(税率查询)클릭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home.html>)

- ② HS코드(税号) 또는 상품명(商品名称) 입력

## ③ 세율 더 보기(更多税率) 클릭

进出口商品税率查询

税号 3922 商品名称  查询

税号	商品名称	进口最惠国税率	进口普通税率	进口暂定税率	操作
3922100000	塑料浴缸,淋浴盘,洗涤槽及盥洗盆	6.5%	80%		<a href="#">更多税率</a>
3922200000	塑料马桶座圈及盖	6.5%	80%		<a href="#">更多税率</a>
3922900000	塑料便盆,抽水箱等类似卫生洁具	6.5%	80%		<a href="#">更多税率</a>

首页 上一页 1 下一页 末页 跳转到  跳转

## ④ 협정세율(协定税率)에서 중한자유무역협정(中国韩国自贸协定) 세율 조회

更多税率

☒ 进口最惠国税率、普通税率、暂定税率

税号	商品名称	进口最惠国税率	进口普通税率	进口暂定税率
3922200000	塑料马桶座圈及盖	6.5%	80%	

☐ 进口消费税率、增值税税率

☐ 进口反倾销税率

☐ 进口反补贴税率

☐ 进口废弃电器电子基金、保障措施关税税率

☒ 进口协定税率

协定名称	进口协定税率
中国韩国自贸协定	6%
中国-瑞士自由贸易协定	0
中国澳大利亚自贸协定	2%

## ■ 중국측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변경

### ●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변경

- 2018년 4월 중국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됨
-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에서 해관총서(GACC)로 변경되며, 2018년 8월부터 한-중 FTA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는 해관총서 산하 전국 42개 직속 해관에서 수행됨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계속 수행

변경 전	변경 후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국해관총서(GACC)/전국지역해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이관 업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이후 착오 발급사례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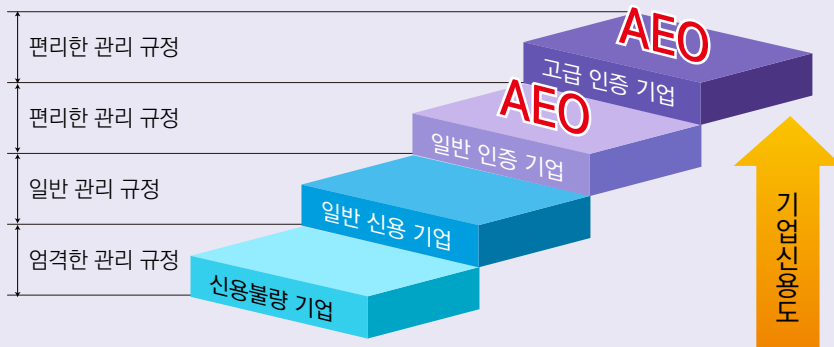
- 잘못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지역 중국해관에서 정정발급이 가능
-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를 적용해야함

## ■ 중국해관 AEO제도 및 한-중 AEO 상호인정 협력

### ● 중국해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 AEO 인증제도: 전세계 관세청에서 제시한 신용, 준법, 안전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인증하고, 통관편의를 부여하는 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ion):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2013년 6월 수출입 기업의 신용관리를 AEO 인증으로 변경  
(前) 5개유형(AA, A, B, C, D) → (後) 4개유형(AEO 고급/일반, 일반, 불량)

수출입기업 신용등급	신용관리 조치
AEO 고급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증기업 혜택+추가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화물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확정 또는 기타 세관 수속 이행 완료전 통관수속 처리 가능</li> <li>- 세관연락관 지정</li> <li>- 가공무역기업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의무 면제</li> <li>- AEO 상호인정 국가 및 지역의 세관이 제공하는 편리 조치</li> </ul> </li> </ul>
AEO 일반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감축</li> <li>- 수출입 서류심사 간소화</li> <li>- 수출입화물 통관수속 우선 처리</li> </ul> </li> </ul>
일반신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의 일반적인 관리원칙과 조치 적용</li> </ul>
신용불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확대</li> <li>- 수출입 서류 중점 심사</li> <li>- 가공무역 등 단계에 대한 중점 감독관리 실시</li> </ul> </li> </ul>



## ● 한·중 AEO 상호인정 협정

- 2014년 1월 한국과 중국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 양국 AEO 인증기업의 통관 혜택: ① 화물 검사율 축소 ② 서류심사 간소화 ③ 우선통관 ④ 세관연락관 지정 ⑤ 비상시기의 우선처리
- 중국 AEO 국제상호인증: 중국이 AEO 상호인증 받은 국가와의 수출입에 있어서도 무역편의 혜택 제공
  - ❖ 2017년 7월 중국은 싱가포르,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EU, 스위스, 뉴질랜드 등 총35개 국가와 AEO 상호인증 체결 → 2020년 전까지 일대일로 협력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몽골)와 AEO 상호인증 체결 예정

## ● 중국 AEO 인증 준비

- (평가기준) 중국 AEO 인증은 ‘해관인증기업기준’에 준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평가기준과 통관편의 수준이 다른점을 유의
- (인증사례 참고) 해관 및 협회의 AEO 교육에 참가하거나, AEO 인증에 성공한 기업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아 시행착오 최소화

### ▶ 중국해관 AEO 인증기업 평가 기준

내부통제	재무상황	준법규범	무역안전	기타 기준
* 인증표준점수 = 100점+(모든 가감점 항목 득점 총합)				
* 인증표준점수95점 이상 통과(고급인증32개 평가항목, 일반인증29개 평가항목)				

### ▶ AEO 고급인증, AEO 일반인증, 일반신용기업에 대한 통관편의

No.	항목	항목설명	일반신용	AEO 일반인증	AEO 고급인증
1	기업신용	거래처/해관에서의 상업신용	낮음	중간	높음
2	통관검사율	수출입시 통관 검사율	5.5% 내외	3% 내외	0.7% 내외
3	국내통관비용	화물검사비용 등	정상	5% 절약	8% 절약
4	통관시효	평균통관시간/접수, 검사 등	정상	18% 빠름	28% 빠름
5	가공무역보증금	공장 임대	면제신청	면제/ 면제신청	면제/ 면제신청
6	일괄납세	월말 세금 일괄 납세	불가	가능	가능
7	원자재자체심사	수책, 장부의 원자재 소모비용 자체 심사 기재	불가	가능	가능
8	전자장부관리	전자장부 신청	불가	가능	가능
9	해관사찰률	사후사찰 추출 검사율	높음	낮음	가장 낮음
10	신용통관	세관 미판결, 담보 통관 등	불가	불가	가능
11	AEO국제상호인증	해외 통관 편의	불가	불가	가능
12	전용서비스창구	전용창구 및 전문인력 지원	없음	없음	있음

## ■ 중국해관, 24시간전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 ● 2018년 6월, 중국해관 선적 24시간전 사전신고제도 시행<sup>7)</sup>

-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제외)로의 수입, 중국 본토에서의 수출, 환적(T/S)건은, CCAM 규정에 맞는 적하목록 신고가 이뤄져야함
  - ❖ 필수정보가 누락될 경우, 중국해관은 적하목록 신고를 거절 가능함
  - ❖ 중국해관의 승인 후 수출지에서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음
  - ❖ 보고된 내용과 실제 선적된 화물이 다를 경우 반송 처리 가능함

### ●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CCAM)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구간	중국 수출/수입 및 중국 환적(T/S) 후 타국가 수출화물까지 모두 해당
시행시기	2018년 6월 1일부터 (선적일 기준)
시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 선적 24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모든 화물의 세부정보를 수출지에서 중국해관에 전송 완료(EDI 전자문서교환)</li> <li>- 직교역화물은 수출지, 환적화물은 환적항에서 EDI 전자문서 전송</li> <li>- 중국해관의 승인이 떨어진 뒤 수출지에서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음</li> <li>- 보고된 내용과 실제 선적된 화물이 다를 경우 반송 처리</li> </ul>
필수항목	<p>중국해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적하목록 항목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가 적하목록에 포함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하목록상 품명은 B/L상의 품명과 일치해야 하며, 품명은 광의어, 약자가 아닌 상세하고 정확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함</li> <li>2) 적재항 및 국가코드</li> <li>3) 송하인, 수하인 그리고 수하인이 To order인 경우 화물도착 통지처 의 이름과 연락처, 연락처 유형 및 기업코드와 기업코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코드 및 기업코드 유형의 경우 한국은 VAT no., 중국은 USCI, OC를 의미</li> </ul> </li> </o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주가 개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신분증번호나 여권번호를 대신 제출</li> <li>-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물은 도착지 담당자와 긴급연락처를 추가로 밝혀야함</li> </ul>
패널티	위반시 최대 RMB10,000(USD15,384)까지 패널티 부과

7) 2017 세관총서 공고 56호



## ■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시행

### ● 2018년 2월, 중국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시행<sup>8)</sup>

-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에 따라 중국에 특정 목적을 갖고 규정된 기간 내에 일시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 일시 수출된 물품의 재수입이 가능해짐
- 동 법은 물품의 임시수입 및 재수출에 사용되는 국제표준 세관문서인 A.T.A 까르네(수입·수출 신고양식, 재수입증명서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

### ●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제3조	<p>일시 수출입화물 포함 물품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박람회 및 무역 행사에 전시 또는 사용되는 화물</li> <li>② 문화, 체육 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 및 경기용품</li> <li>③ 신문보도, 영화 촬영 및 편집, 방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설비 용품</li> <li>④ 과학연구, 교육,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용품</li> <li>⑤ ①~④조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쓰이는 교통수단 및 특수차량</li> <li>⑥ 샘플</li> <li>⑦ 자선활동에 사용된 기구, 설비 용품</li> <li>⑧ 설치, 사전 검사, 측정,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및 공구</li> <li>⑨ 포장 화물의 포장 재료</li> <li>⑩ 관광 목적의 자가용 및 용품</li> <li>⑪ 공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기 및 용품</li> <li>⑫ 사전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장비, 차량</li> <li>⑬ 그 외 중국해관에서 규정한 기타 일시 수출입화물</li> </ol>
제2장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출입된 물건은 화물이 반출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출국으로 복귀되어야 하며, 특수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중국해관에서 연장 수속을 진행해야함</li> <li>- 연장은 최대 3회(1회에 6개월 미만) 가능</li> <li>- 중국 국가급 연구 및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시 수출입된 물품, 전시회에 24개월 이상 전시하는 전시품은 중국해관의 허가에 따라 3회 이상 연장 가능</li> </ul>
제2장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수출입물품은 기간 만료 후 즉시 수출국으로 복귀해야함</li> </ul>
제3장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용품 중 배포용이나 소모성의 물품들은 전시회의 규모, 성질, 참여자의 수 등을 고려해 중국해관이 수입관세를 면세</li> </ul>

8)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일시수출입화물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暂时进出境货物管理办法)

## ● A.T.A 까르네 관련 한국기업의 유의해야할 점

구분	유의점
반출국으로 다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A 까르네는 국제보증조직(IBBC)의 가입단체에 의해 발급된 것에 한해 상기 언급된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한 후, 반출국으로 다시 반입될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li> <li>- 정상적인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 이외의 변질 또는 손상이 없이 반출했던 국가로 복귀되어야 함</li> <li>- 농산물, 식료품, 소모품, 위험물품 등 일회용품 또는 물품의 부패 또는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li> </ul>
수출증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A 까르네로 수출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수출증서부분은 관세법 규정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주되며, 재수입 신고시 세관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됨</li> </ul>
A.T.A. 까르네 보증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A.T.A 까르네 보증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이며, 한번 사용한 증서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함</li> <li>- A.T.A 까르네를 반납해야만 물품의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li> </ul>

## ■ 화물 통관신고서(종이서류) 전면 취소

### ● 2018년 6월, 중국해관 출경/입경 화물통관 신고서(종이서류) 전면 취소<sup>9)</sup>

- 통관과정 중 통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서, 법적으로 규정한 검사검역 필수 수입상품 신고시 통관신고서 코드와 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짐
- 기업은 세관신고·검역신고가 통합된 단일창구('인터넷+ 세관' 포함)를 통하여 중국해관에 일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해짐
- 특수한 사정으로 종이문서 형태의 검사검역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처리함
  - ❖ (1) 국내로 반입되는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운송·배달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종이문서 형태의 <입국화물 전출 통지서>를 발행함
  - ❖ (2) 수출집중신고화물 등 특수화물에 해당되거나 컴퓨터·시스템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요에 근거하여 종이문서 형태의 <출국화물 검사·검역 업무 연락서>를 발행함

9) 2017 세관총서 공고 50호

## ■ 한-중간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CO-PASS) 구축

### ● 2016년 12월, 한-중 FTA 적용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CO-PASS) 구축

- 한국과 중국의 세관당국은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CO-PASS)을 통해 협정상상의 화물 원산지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합의
  -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화물은 중국해관에서 수입통관시 한-중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받아 원본서류를 제출해야함
- 한-중 FTA CO-PASS의 전면시행으로 수입통관 또는 사후협정 적용신청시 C/O 원본제출 의무가 없어졌고, C/O 원본제출이 생략되면서 물류비용이 낮아지고 C/O 심사가 간소화됨
  - ❖ 하지만 필요한 경우 중국해관이 C/O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C/O 원본을 잘 보관해야함

### ● CO-PASS 조회사이트를 통해 C/O 진행정보 조회가능

▶ YES FTA 홈페이지(yesfta.customs.go.kr) → 원산지검증 메뉴

**원산지검증**  
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가이드 라인  
자가검증 TOOL  
협정관세 적용제한 및 적용보류  
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지원센터  
**CO-PASS(EODES) 진행정보**  
한/중 발급기관 C/O 조회

**CO-PASS(EODES) 진행정보**

**C/O정보**

**조회설정** (+필수값입니다)

발급일자: [ ] ~ [ ] 전송일자: [ ] ~ [ ]  
 업장구분: [한중] 전송구분: [ ]  
 발급번호: [ ] [추가화]

**조회목록** (송신수신일자를 선택하세요)

송신구분	송신수신일자	송수신결과	응답결과	응답시간	실패사유	통관여부	통관일자
<b>상세내역</b> <b>공통</b>							
원산지증명번호		원산지증명일자					
수출자	상호						
	주소						
수입자	상호						
	주소						
생산자	상호						
	주소						
출발일자		선/기명					
적재할		목적할					
승장번호/내용							

## 제3절 인증제도

### ■ 중국 수출의 필수 요건, 중국 인증제도

#### ● 중국 시장진출과 인증제도

- 중국의 인증제도는 중국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판매 또는 수입하기 위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하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
- 대표적인 강제인증은 CCC와 CFDA, 자율인증은 CQC가 있으며, 기타 수입요구 사항으로는 GB-TEST가 있음
  - ❖ 완제품 CCC 인증진행시 CQC 인증승인 부품을 사용하면 부품시험 면제

구분	인증	분류	대상품목
강제인증	CCC	20개 제품군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 158품목
	CFDA	보건식품 위생허가	보건식품
		화장품 위생허가	비특수 화장품, 특수화장품
	CCCF	소방인증	화재경보제품, 화재보호제품 등
	CSP	안전기술방법	사회공공안전제품(안전기술 방법제품, 도로교통 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
	CSEL	특종설비	특종설비 제조허가(보일러, 압력용기류(보일러, 압력 파이프), 기계류(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놀이기구, 공장내 전용 차량), 안전부품(가스실린더 밸브,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China EX	방폭 설비	방폭 전동기 제품 및 부품, 방폭 전기제품 및 부품, 방폭 계측기 제품 및 부품, 방폭 램프 제품 및 부품
	CEL	에너지 효율 등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고압 나트륨 램프, 인덕션, 컴퓨터용 모니터, LED 조명, 전자레인지, 평면 TV 등 35개 품목
	SRRC	무선설비	공공이동통신설비, 무선접속시스템, 전용네트워크 장비, 라디오 및 TV 설비 등


구분	인증	분류	대상품목
강제인증	MOH	물 제품	식용수 생산과 공급과정 중 식용수와 연결 및 지수 재료, 플라스틱과 유기합성 배관재료, 파이프 연결재료 등
	CPA	계량기	계측제품, 인화폭발성 기체측정기, 거리측정기, 속도 측정기, GPS수신기, 온도계, 유량계 등
자율인증	CQC	500여개 제품	전자제품 및 부품, 가정용 전기기기 및 부품, 상업용 주방 기기, 건축용 제품, 음향영상 제품, 유리류, 발전기세트, 방직물 등
		비금속재질 인증	인쇄회로기판(PCB),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CCL), 미가공 사출의 플라스틱 원료(PC, ABS, PP 등), 가공 사출된 균질 플라스틱 부품(외부 케이스, 터미널 플라스틱 단자 등)
		절수절전 인증	사무용설비, 전력설비, 전기기계류 설비, 가전제품, 조명 설비, 건축자재, 자동차제품
		식품접촉제품 인증	식품과 접촉되는 제품의 안전인증(밥솥, 주방기기, 커피머신, 식기 및 식품가공기기)
	LA	노동안전보호 인증	안전모, 마스크, 면부보호대, 신체보호대, 안전화, 추락 방지보호구, 안전장갑류 등
	CSP-GA	안전방법제품	사회공공안전제품(안전기술방법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
	CQC	유기인증	유기원료의 95% 이상인 가공제품(육류, 수산물, 채소류, 곡물류, 유제품, 술, 사료 및 의류(방직류))
	China-RoHS	유해물질 제한	전기전자 제품(통신설비, 방송설비, 컴퓨터 등)의 전류 및 전자장 측정
	HACCP	식품위생안전	6개 식품군(수산물, 육류, 냉동야채, 과일, 야채주스, 고기 및 수산물을 함유한 냉동식품, 통조림 제품)
	GMP	식품위생안전	영유아 조제분유, 유제품 등
	GB-TEST	국가표준	일반식품, 영유아제품, 식품접촉재질 등

## ■ 중국 강제성 인증(中国强制性认证)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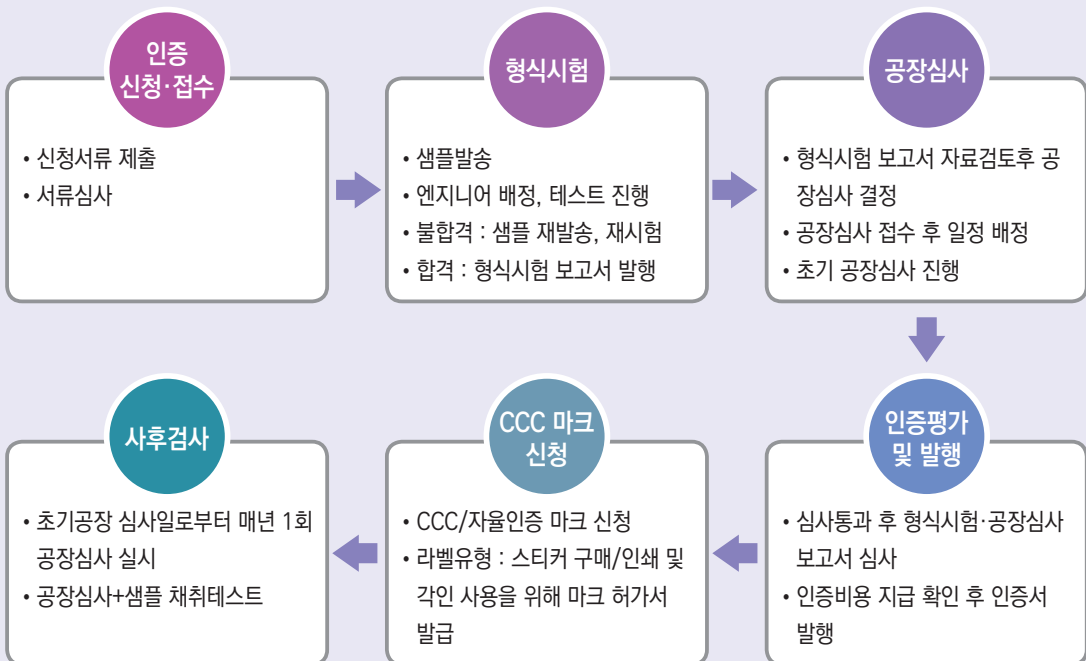
### ● CCC인증은 중국의 안전보장, 사기행위 방지, 인체의 건강,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

- 중국 수출 전기·전자제품·자동차 등 158개 품목, 중국 인증기관의 CCC인증서 획득 후 CCC마크 부착
- 인증대상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을 받아야 하며, C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가 모두 불가함

CCC인증대상 대분류표	
1. 전선 및 케이블	10. 조명설비
2. 전기 스위치, 보호 기기 및 연결용 전기장치	11. 자동차 및 차량 안전 품목
3. 저전압 전기장치	12. 차량 타이어
4. 소형 전동기	13. 안전유리
5. 전동공구	14. 통신 설비
6. 전기 용접기	15. 안전, 방범 설비
7. 가정용, 유사 용도 전기설비	16. 인테리어 제품
8. 음향, 영상설비	17. 완구류
9. IT 설비	

기관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인증품목 개발 및 인증기관 지정 - 중국품질인증중심(CQC) 및 기타 기관 : 국가가 지정한 강제인증 담당기관		
제출 서류	신청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CB 승인서/성적서, 주요 부품목록, 회로도 및 조립도, 부품 배치도, 라벨, 사업자 등록증, 제품 설명서, 공장 심사 조사서, 기타 서류		
CCC 로고		주요 내용	- 지정인증기관 22개 - 지정시험소 170여개 - 21개 대분류, 158개 품목 - 186개 한국기업이 3,249개 유효인증서 보유 - 외국 생산제품 ; 수입前 인증, 인증마크 부착 - 중국내 생산제품 : 공장 출하前 인증, 인증마크 부착

CCC 인증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C인증 발급 소요기간 : 80~90일</li> <li>- 필요자료, 샘플 확보 후 신청 및 CB 성적서 적극 활용</li> <li>- CCC 인증부품 사용</li> <li>- 조립이 복잡하거나 준비가 필요한 제품은 설치를 위한 인원을 시험소에 파견</li> <li>- 첫회 공장검사 지정일에 검사 완료</li> <li>- 첫회 공장검사 결과 부적합 처리는 시정조치</li> </ul>
CCC 면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C면제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시험용·기술검토용 품목</li> <li>· 완제품 가공후 수출을 위한 부품</li> <li>· 대외무역 계약에 의거해 100% 수출을 위한 공급제품</li> <li>· 기술개조를 위한 생산라인 도입을 목적으로 수입한 부품</li> <li>· A/S 또는 단종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li> <li>· 3국 무역을 위해 중국 경유만 하는 제품</li> <li>· 기타 특수 상황</li> </ul> </li> </ul>




## ■ CFDA – 화장품 위생허가

###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등록·허가된 화장품만 중국내 정식판매 가능

-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은 CFDA의 위생허가 등록(비준)절차를 통과해야 중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함
- 대상품목은 특수 화장품 및 비특수 화장품으로 구분되는데, 특수 화장품은 위생허가제, 비특수 화장품은 등록제를 적용함
- 주의할 사항은 중국내 법정대리인 및 재중책임회사를 선정해야하며, 전성분표 및 공정도 등 제품의 기밀사항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 CFDA는 수입제품에 대한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활용

- 대외적 명분 : 자국 국민 보호 및 높은 품질의 제품 제공, 국내외 기업간 공정거래 유도
- 대내적 명분 : 경쟁력 높은 국외기업 및 제품의 도입시기 연기, 자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DB 구축, 자국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구축 등

기관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RA) [前국가식품식약감독관리총국(CFDA)]		
CFDA 로고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반드시 재중책임회사로 선임되어야 함</li> <li>- 전성분표, 공정도 등 제품에 대한 기밀사항까지 제출하여, 전세계 우수제품에 대한 정보를 DB화함</li> </ul>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시기 : 수시접수</li> <li>- 처리기간 : 비특수 화장품 6~8개월, 특수 화장품 10~12개월(미백+SPF 14개월 이상), 영유아 화장품 12개월 이상</li> <li>- 인증수수료 : 제품시험비(공인시험기관별, 품목별 상이)</li> </ul>		
신청 서류	신청서, 제품 전성분표(표준 INCI 명칭 및 복합성분 정확히 표기),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단상자, 용기, 설명서 포함), 제품공정도 제품 중문명 및 명명근거, 테스트용 샘플 (중국기준에 맞게 조정된 전성분 및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작된 샘플), 제조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s), 위탁생산시 위탁가공협약서, 위탁생산시 제조사의 CGMP 혹은 ISO9001 증서, 특정원료규격 자료(COA), 탈모방지·발모·건미·미유 제품은 해당기능을 증명 가능한 과학문헌 자료, 기타 위행허가 신청에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 및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6개월 전에 CFDA에 갱신 신청하면 재발급 가능</li> <li>- 필요서류 : 허가증 원본, 행정허가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신청기업 CFDA ID &amp; PW, 허가증 유효기간 동안 법규 변경으로 시험항목이 추가되었을 경우 해당 시험항목 테스트 보고서 등</li> <li>- 소요기간 : 3개월</li> </ul>
변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FDA 업체 등록 및 허가 완료 후 관련 정보 변경 가능</li> <li>-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10개월전에 제품의 정보변경시 해당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진행해야함</li> <li>- 변경종류 : 허가 취득완료 제품 명칭 변경(중문명칭은 변경가능하나 영문명칭은 변경 불가능), 신청기업 정보변경, 재중책임회사 정보변경 등</li> <li>-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변경종류에 따라 상이함</li> </ul>




구분	대분류	상세분류	인증 사항
특수	자외선 차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	위생 허가
	기미제거	피부 색소침착의 경감	
	양모	모발의 성장, 탈모 및 머리굵김 개선	
	염모	모발 색상 변화 작용	
	체취제거	신체 냄새 제거	
	체모제거	체모감소, 제거	
	퍼머넌트	모발의 굴곡도 변화	
	유방슬리밍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제품	
	바디슬리밍	체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제품	
비특수	스킨케어	스킨토너, 에센스, 크림, 에멀전, 아이크림 등	등록제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팩트, 블러셔, 아이팬슬, 섀도우 등	
	네일	매니큐어, 패디큐어, 리무버	
	두발	헤어로션, 스프레이, 젤, 샴푸, 린스	
	방향제품	향수, 데오드란트	
신원료	신원료	사용가능 원료, 금지, 배합제한 원료를 제외한 신개발 원료	행정허가

## ■ CFDA – 보건식품 위생허가

###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허가한 보건식품만 중국에서 정식 판매 가능

- 중국정부는 18가지 효능을 가진 보건식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 발급

등록 (备案)	최초 중국으로 수입되는 보건식품 중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허가 (注册)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외 아래 기능성을 가진 수입 보건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역력 증가</li> <li>납배출 촉진</li> <li>다이어트 보조</li> <li>혈중 중성지방 개선</li> <li>목건강 개선</li> <li>골밀도 증가</li> <li>혈당 조절 도움</li> <li>수면장애 개선</li> <li>영양성 빈혈 개선</li> <li>항산화 작용</li> <li>모유분비 촉진</li> <li>간손상 보호</li> <li>기억력 개선</li> <li>피로개선</li> <li>피부건강 촉진</li> <li>눈피로 완화</li> <li>긴장완화</li> <li>위장개선</li> </ul>

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前국가식품식약감독관리총국(CFDA)]	CFDA 로고	
신청서류	1. 수입 보건식품 등록 신청표 2. 신청인 사업등록자 사본 3. 보건식품의 통용명이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약품명과 중복되지 않았다는 검색 자료 4. 신청인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서 5. 상표등록증 사본(상표등록 안했을시 제공안함) 6. 제품 연구개발 보고서 7. 제품 원료배합 및 배합 근거, 원부자재 규격 및 사용근거 8. 유효성분/기능성분, 함량 및 유효성분/기능성분의 시험방법 9.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상세설명 및 관련 연구자료 10. 제품표준(기업표준) 및 제작 설명, 원부자재 품질표준 11. 식품 접촉제품의 포장재 종류, 명칭, 품질표준 및 선택근거 12. CFDA 지정시험소에서 제출한 시험보고서(시험 신청표 및 접수통지서, 안전성 평가 시험보고서, 기능성 시험보고서, 유효성분/안전성/위생학 시험보고서) 13. 제품라벨, 설명서 샘플 14. 제조허가증 15. 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16. 자유판매증명서(1년이상 판매) 17. 해당제품 생산국 혹은 국제 표준 18. 제조국에서 판매되는 실제품의 포장, 라벨, 설명서 및 중문 번역본 19. 기타 제품심사에 유용한 자료 20. 미개봉 최소포장 완제품 2개 21. 제품기술 요구 22. 완제품 검사 성적서		
소요기간	- 등록 : 약 10개월      - 허가 : 약 36개월		
유효기간	- 5년      -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연장신청 준비		




\* 허가제품은 CFDA 심사단계 생략

## ■ 중국국가표준 GB

### ● 중국국가표준인 GB (国家标准, GuoJia Biao Zhun)

- GB는 중국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국가표준으로 우리나라의 KS표준과 유사함
  - ❖ 최근 중국해관 또는 중국 바이어 요청에 의한 자율인증 신청수가 증가함
- GB-TEST는 식품, 공산품 등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입통관을 위한 사전테스트로, 중국 규격으로 테스트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 등이 중국 규정요구 사항에 부합됨을 증명함
  - ❖ 수출품의 GB 표준을 근거로 GB-TEST가 가능하며, 인증서는 발행이 불가하고 테스트의 보고서만 발행 가능함
  - ❖ CCC인증 진행시 부품에 대한 GB-TEST를 제출하면 부품 추가시험 생략이 가능
- GB-TEST의 종류는 영양성분, 안전성, 미생물, 중금속, 독성 테스트 등이 있음

	대상제품	검사내용
	식품	영양성분 테스트, 미생물, 중금속 등 규격테스트
	공산품	대장균 수치 등 미생물 규격테스트
	영유아제품	독성테스트, 피부자극 테스트 등 규격테스트
	식품접촉재질	안전, 중금속, 미생물 등 규격테스트

### ● 절차(약 1~3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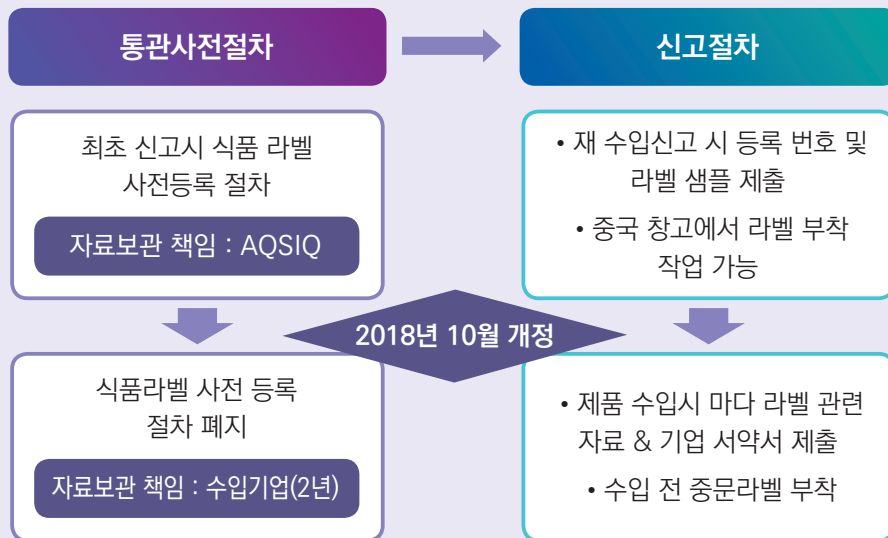


## 제4절 라벨링제도

### ■ 새로운 수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법 시행

#### ● 식품 라벨의 사전등록 절차 취소

- 2018년 10월,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관리방법> 제4조에 의거해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AQSIQ, 現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S))의 기존 식품라벨 사전 등록절차가 취소됨
- AQSIQ의 라벨심사 및 보존책임 대신 수입기업이 2년간 자료를 보관하며 중문 라벨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가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해야 함



#### ● 세관 신고시 제출서류 증가

- 기존에 라벨 등록번호 및 샘플만 제출해 오던 것과 달리 매 신고 시마다 라벨 관련 자료 및 서약서 제출 필요
- 기존에는 세관 통과 이후 라벨 부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후에 수입기업은 중국 수입 이전 상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부착된 중문 라벨은 신고되는 라벨 샘플과 일치해야 함

수입기업 (대리상) 제출 대상 라벨 자료	
식품의 중문 라벨 샘플	중문 라벨 이외의 원문 라벨이 있다면 원문 라벨 샘플과 번역본 함께 제출
강조 표기된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 수상, 허가증, 법적 생산지 지리표시 등 내용 강조시 그에 대한 증명서류 - 특수 성분 함유, 영양 성분 함량 등 내용 강조시 그에 대한 증명 자료
기업 서약서	1. 수입 식품에 부착 또는 인쇄된 중문 라벨이 신고한 중문 라벨 정보와 일치하며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함 2. 이미 수입한 식품의 라벨이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 63조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수함

### ● 검험검역기관의 사후 검사 및 처벌 규정 신설

-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관리방법〉의 개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해 추출 검사 방식으로 검사 방식이 개정되었으며, 불합격한 식품 라벨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감시 감독 방식	모든 라벨 대상 검사	추출 검사 방식의 적용		
감시 감독 내용	1. 서식에 대한 검사 2. 라벨 부합성 검사	추출된 라벨	검사 형식	현장 검사
			검사 내용	1. 중문 라벨 부착 여부 2. 부착 라벨과 신고 자료 일치 여부
		그 외 라벨	검사 형식	라벨 검사
			검사 내용	제출된 라벨 자료에 의거한 심사
감시 감독 대상	화물	수입기업		
		불합격 기업이 재수입 시 엄중한 삼시 조치 적용		
처벌 강도	라벨 불합격 시 수정 가능	수입 금지 조치 및 수입 식품 반송 및 소각 조치		

- 사전 라벨 등록 절차의 취소로 수출 이전 중문 라벨 완성 및 라벨 부착 절차 완수가 가능해져 대(對) 중국 수출 절차 단순화 및 통관 기간의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감시 의무 및 자료 보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자료 보관 및 사후 심사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 식품가공제품

### ● 중국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가공제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링 부착

- 2014년 개정된 중국의 식품안전법 제92조에 의거해 수입하는 예비포장식품, 식품첨가제에는 중문라벨이 있어야 하고 법에 따라 설명서가 필요한 것은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함
- 중국 식품안전법 126조 규정에 따르면 중문라벨을 미부착했을시, 식품과 생산설비 압수, 벌금부과(판매가치 1만 위안 미만은 5천~5만 위안의 벌금, 1만 위안 이상은 5~10배의 벌금), 유통허가증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되는 식품, 신선식품(냉동식품, 조미료 및 장류 등 제외), 음료, 술, 생수 등은 영양라벨 강제 표기가 면제됨

구분	내용
표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명칭</li> <li>- 식품원산지</li> <li>- 생산업체(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li> <li>- 식품의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저장조건</li> <li>- 내용량 및 규격</li> <li>-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원료</li> <li>- 생산업체가 적용하는 제품표준코드</li> <li>-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li> <li>-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마크(생산허가증이 필요할 경우)</li> <li>-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li> </ul>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 선정적인 내용 및 다른 식품을 비하하거나 영양 과학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li> <li>- 허위, 과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구, 그림을 사용하는 것</li> <li>-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문구, 그림, 부호의 사용 및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 또는 식품의 어떤 성질과 다른 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내용</li> <li>- 질병 예방 또는 치료 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li> <li>- 보건식품이 아니지만 건강 유지 및 보장 기능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li> <li>-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li> <li>-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내용</li> </ul>
기타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할 것</li> <li>2. 선명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오래 유지될 것</li> <li>3. 규범화된 중문 간체자를 사용해야함(상표예외)</li> <li>4. 라벨이 식품 혹은 그 포장물(용기)과 분리되면 안됨</li> </ol>

구분	내용
기타 유의사항	<p>5.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문과 대응관계 이어야함.(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소, 해외 판매자의 명칭 및 주소, 웹사이트 제외)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중문간체자 보다 커서는 안됨(상표예외)</p> <p>6. 포장재 혹은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35cm<sup>2</sup> 이상일 때, 강제표시 내용의문자, 기호, 숫자의 높이가 1.8mm 보다 작아서는 안됨</p> <p>7. 판매 단위 포장 안에 다양한 품종, 개별 포장으로 단독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별 포장된 식품마다 따로 상표표시를 해야 함.</p> <p>8. 외포장을 쉽게 열어 식별할 수 있거나 내포장(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 내용을 외포장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면 외포장에 중복표시하지 않아도됨</p>

## ■ 화장품

### ● 수입화장품은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과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실시세칙’에 따라 라벨링을 부착해야함

-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경영하는 기관 및 개인은 라벨, 소포장 또는 설명서가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의 판매가 불가함
-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등록증과 수입화장품 라벨심사인증서 취득이 필요함
- 위생허가 신청 시 제품의 원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중국 시장전용 포장설계가 있을 경우 제품의 포장설계를 같이 제출해야함

구분	내용
표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명칭</li> <li>- 실제 생산가공지</li> <li>- 생산자의 명칭, 주소</li> <li>- 내용물의 분량(액체 화장품은 체적 표시, 고체 화장품 질량 표시, 반고체나 점성 화장품 질량 또는 체적으로 표시)</li> <li>- 화장품 전성분표시</li> <li>- 생산일자과 유통기간 또는 생산 로트번호와 사용기한</li> <li>- 기업이 집행하는 국가표준, 업계 표준코드, 등록된 기업표준코드</li> <li>- 제품품질검사합격증</li> <li>- 생산허가증 표식과 번호</li> <li>- 주의 사항 및 중문 경고설명, 보관 조건 등 사용설명서 첨부</li> </ul>







구분	내용
표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등록번호 (수입 비특수 화장품)</li> <li>- 특수화장품허가번호 (수입 특수 화장품)</li> </ul>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에 대한 과장, 허위 선전, 동 종류 제품을 폄하하는 내용</li> <li>-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명시, 암시</li> <li>- 소비자 오해나 혼동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명칭</li> <li>-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표시형식</li> </ul>
기타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장품 표시에서 내용은 반드시 규범화한 중문으로 표시할 것 (상표 제외). 병음문자나 소수민족 문자 혹은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자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함.</li> <li>2. 사용자(남성용, 유아용 등), 컬러, 향 등의 정보는 제품명과 가까운 곳에 표시</li> <li>3. 화장품 표시가 화장품 포장과 분리되지 않도록 할 것</li> <li>4. 화장품 표시는 화장품 최소 판매단위에 표시해야 함</li> <li>5. 화장품 표시 내용은 명확하고 선명해야 하며 오랜 시간 보존 가능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함.</li> <li>6. 제품 규격은 최소 포장단위와 최종 판매단위를 구분해 기재</li> <li>7. 화장품 포장물(용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20cm<sup>2</sup> 이상인 경우 화장품 라벨 중 내용 글자체 높이는 1.8mm 보다 작아서는 안 됨. 라벨내용의 표음문자나 외국어문자의 글자체는 대응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상표 제외).</li> <li>8. 제품 포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10cm<sup>2</sup> 이하이자 순함량이 15g 혹은 15ml 보다 크지 않은 제품의 경우 화장품의 명칭, 생산업체 명 및 주소, 순함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혹은 생산로트번호와 사용기한만 표시 가능</li> <li>9. 수입 화장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수입등록번호' 명시 필요</li> <li>10. 라벨에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설명서의 별도 동봉 가능</li> </ol>

## ■ 의약품

- 의약품은 '의약품관리법'과 '의약품설명서 라벨관리규정'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고 설명서가 동봉되어야 함

구분	내용
표기사항	의약품 명칭, 성분, 규격, 제조자, 인허가번호, 생산로트 번호, 생산일자, 유효기간, 적용증상 또는 주치기능, 용법, 용량, 금기사항, 부작용 및 주의사항



구분	내용
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증상 또는 주치기능이 규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li> <li>거짓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됨</li> <li>의약품 성분의 함유량은 국가 의약품 기준을 부합해야함</li> <li>유효기간과 생산로트번호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변경했을 경우 모두 불량품으로 판정됨</li> <li>의약품 포장은 의약품 품질 요구에 부합해야 함</li> <li>운송·보존에 쓰일 포장 라벨에는 의약품 통칭, 규정, 보존·생산일자, 생산로트번호, 유효기간, 인허가 증서번호, 제조자 등 정보를 명시해야 함</li> <li>마취류 의약품·항정신성 의약품·의료용 독성 의약품·방사성 의약품·외용약품은 모두 규정대로 표식을 부착 및 인쇄해야 함</li> </o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마취용</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외용</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항정신성</p>  </div> </div> <p>7. 비처방성 의약품 라벨에는 그 판매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갑류 OTC (병원, 약국만 판매 가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을류 OTC (병원, 약국, 슈퍼, 호텔 등에서 판매 가능)</p>  </div> </div>

## ■ 전기·전자제품

### ● 2016년 7월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관리방법(RoHS 2.0)'을 시행함에 따라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을 엄격히 규제함

-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이 함유한 유해물질을 표시해야함

구분	내용
적용범위	<p>– 전기전자제품은 전류 및 전자장에 의존해서 동작하거나 혹은 전류 및 전자장을 발생, 전송,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류전류 1500볼트이내, 교류전류 1000볼트 이내의 설비 및 관련 제품을 의미함</p>

구분	내용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 12개 제품은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기준도달관리목록]의 관리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이 제품들은 유해 물질 표시 의무를 만족하는 것 외에도 6대 유해물질 함량이 반드시 제한량 요구 등의 표준을 만족해야함</li> <li>① 냉장고(용적≤800l) ② 에어컨 ③ 세탁기(마른 옷 무게≤10kg)</li> <li>④ 전기 온수기(용량≤500L, 커피 포트, 전기 주전자, 스팀냄비 등 액체 가열기능이 있는 제품 제외)</li> <li>⑤ 프린터(와이어 프린터, 디자인 상 종이 이외의 재질만 인쇄 가능한 프린터 제외)</li> <li>⑥ 복합기(인쇄지≤A3, 인쇄속도≤60장/분) ⑦ 팩스기 ⑧ TV</li> <li>⑨ 감시용 모니터(재질로는 CRT, DLP, LCD, LED, OLED 등이 있고 용도로는 보안, CCTV 모니터, 방송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등)</li> <li>⑩ 마이크로 컴퓨터(데스크탑, 모니터, 키보드, 태블릿 PC, PDA 등 포함)</li> <li>⑪ 이동 통신 휴대기(위치추정, 단순통화 기능 웨어러블 제품은 제외)</li> <li>⑫ 전화기(PSTN 보통 전화기와 IP전화기 포함)</li> <li>- 제외품목: 전기에너지를 생산, 전송, 분배와 관련한 설비는 제외(발전설비, 송전설비, 배전에 관한 설비)</li> </ul>
표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라벨 : 유해물질 미포함, 친환경 제품, 폐기후 순환사용 가능</li> <li>- 오렌지라벨 : 유해물질 포함, 제품설명서에 유해물질 정보 제공, 환경보호사 용기한 (도형속 숫자는 안전사용기한 의미)내 안심하고 사용 가능</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확정</li> <li>- 유해물질의 명칭, 함유량, 소재부품 및 그 제품의 재사용 가능 여부, 부적절 사용 (취급) 시 환경 및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등 정보,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보호사용 기한을 명시해야 함</li> </ul>
대상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가지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기준도달관리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6대 유해물질 함량이 관련 표준을 만족해야 함.</li> <li>① 납 및 납 화합물 ② 수은 및 수은 화합물 ③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li> <li>④ 6가 크롬 화합물 ⑤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⑥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⑦ 국가가 정하는 기타 유해물질</li> </ul>

# 제Ⅲ장

## 중국의 통상 법제도

제1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제2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 제1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 ■ 소비자재 및 중간재,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인하

#### ● 2018년 11월, 중국정부 1,585개 품목의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sup>10)</sup>

- 11월부터 중간재 중심의 1,58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혜국 수입관세율(MFN)을 평균 9.8%에서 7.5%로 인하
  - ❖ 광물, 유리, 철강, 기계, 섬유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중간재 위주의 공업품을 주로 포함
- 지난 7월에는 소비자재 중심의 1,449개 품목의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인하
  - ❖ 의류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의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인하폭이 50% 이상임
- 우리 수출기업들은 HS 코드별(8단위 기준) 관세인하 혜택 점검 필요

#### ● 7월 주요 MFN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 소비자재 품목 위주

구분	품목명	기존 MFN(%)	2018년 7월 1일 MFN(%)
식품	해산물	10~16	7~10
	육류가공품	12~15	5
	해산물 통조림	12	5
	떡볶이	25	10
	라면	15	10
	생수	20	5
	과일주스	20	5
약품	항생제	6	0
	한방약	3	0
화장품	향수	10	3
	색조화장품	10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1
	모발용 염색제	15	3
	치약	10	3

10) 일부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공고

구분	품목명	기존 MFN(%)	2018년 7월 1일 MFN(%)
의류/신발	의류	14~25	6~10
	신발	24	10
가전	냉장고	30	8
	드럼세탁기	10	7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8
	커피머신	32	7
	전기밥솥	32	7
	비데	32	7
스포츠용품	스키용품	14	6
생활용품	주방용품·식기	8~24.5	7
	생리대	10	4
	칫솔	25	8
	티슈	7.5	5
	실내탈취제	10	3

● 11월 주요 MFN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 중간재 품목 위주

구분	품목명	기존 MFN(%)	2018년 11월 1일 MFN(%)
화학	무기화학품	5.5~12	5
	유기화학품	10~14	5~8
고무	고무튜브·파이프	10.5	10
	고무 타이어	17.5	17
가죽	소 가죽	7~8.4	6~8
	말 가죽	7	5
	가죽제품	8	6
목재	숯	10.5	6
	목재 칩·가루	8	6
	목재 섬유판 합판	7.5~12	6
종이	종이·판지	7.5	6
	인쇄물	7.5	6

구분	품목명	기존 MFN(%)	2018년 11월 1일 MFN(%)
섬유	견	10	8
	양모	10	8
	면	6~14	5~8
	린넨	6~10	5~8
	인조필라멘트	10~12	8
	인조스테이플섬유	10~18	8
	워딩·펠트·부직포	10~12	8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10~12	8
광물	석재·시멘트	10.5~24	10~15
	유리·유리제품	10~24	8~20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8	4
철강·금속	철강	9~10	5~6
	철강제품	8.4~21	8
	구리와 그 제품	10~20	8~9
	알루미늄과 그 제품	10~30	8~9
	공구·도구	8.4~10.5	8
	비(卑)금속제 제품	8.4~18	8~9
기계	보일러와 그 부품	8~16	7~10
	터빈·동력	10	8
	에어컨·냉동장비와 그 및 부품	8.4~10	7~10
	인쇄기	12	10
	섬유기계	10~12	8
	재봉기계	12~14	8~9
금속가공용 기계	머시닝센터	9.7	9
	수평선반	9.7~12	9
	드릴링머신	9.7~15	9
	보링·밀링머신	9.7~15	9
	분쇄기·연삭기	9.7~15	9~12

구분	품목명	기존 MFN(%)	2018년 11월 1일 MFN(%)
전기기기 그 부분품	모니터	19~30	10~20
	프로젝터	15~30	10~15
	전구	10~10.5	5~8
	LED전구	10	8
	케이블	8.4~12	8
광학기기	카메라 렌즈	8~15	6~10

## ■ 증치세(增值稅) 제도 개선

### ● 2018년 5월, 증치세 인하

- 중국의 증치세는 상품의 각 거래단계(생산, 유통, 소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 2018년 5월 이후 증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기존 17%, 11%의 세율을 적용해 화물을 수입해온 경우 각각 16%와 10%의 세율로 조정되며, 수출 환급률 또한 각각 1%씩 인하됨
- 이 외에도 소규모 납세 의무자 기준이 연간 매출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증치세 간이과세 방식 적용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

기존 세율	변경 후 세율	업종
1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분야, 물품판매, 물품 수입</li> <li>- 가공, 수선교체용역 제공</li> </ul>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토지사용권, 무형자산 양도</li> <li>- 기초 통신·우편 서비스</li> <li>- 양식, 식용식물유</li> <li>-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li> <li>- 도서, 신문, 잡지</li> <li>-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 필름</li> </ul>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업(방송, 통신, 금융, 현대, 생활 서비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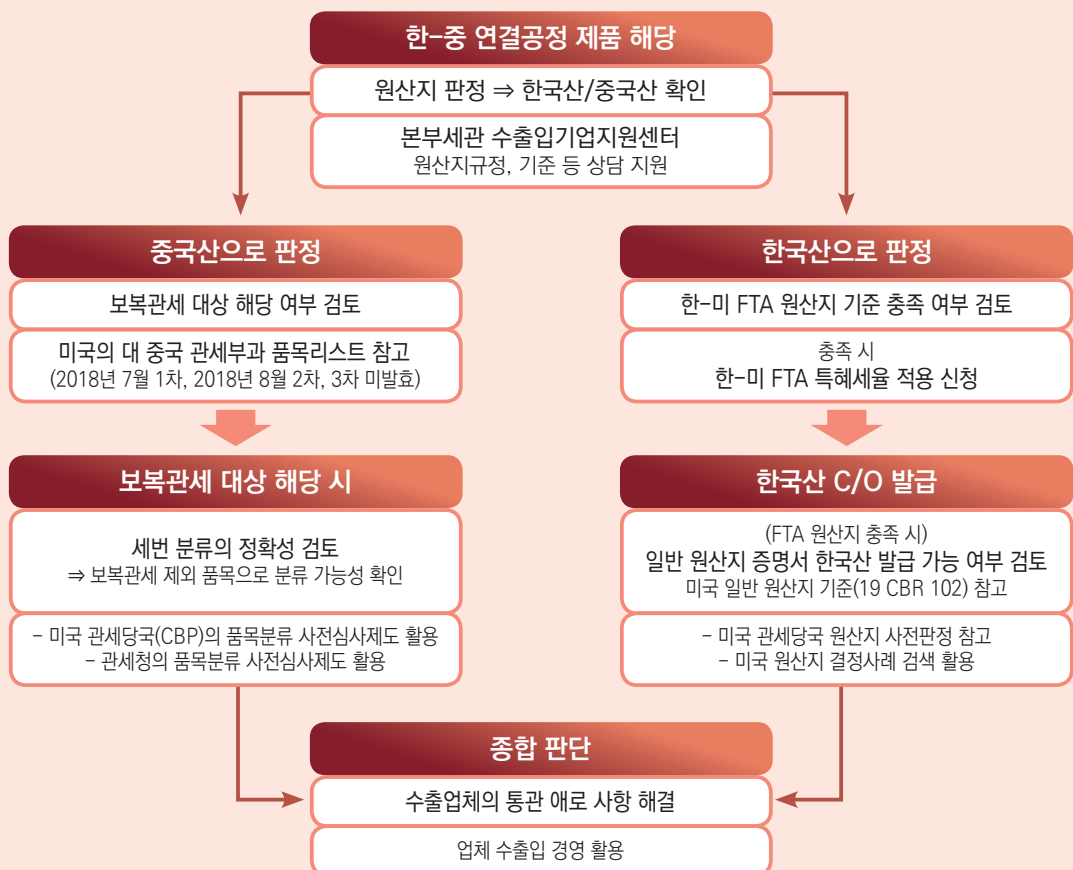


## ■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연결공정 제품” 수출기업 유의사항

### ● 미국 수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주의

- “한-중 연결공정 제품(제조, 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경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함
  - ❖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부과 조치는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함
- 미국 관세당국(CBP)에서 보복관세 부과는 수출국이 아닌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임을 명시한 바, 기업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주의해야함

### ●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관한 원산지 판정 및 대응 절차



## ●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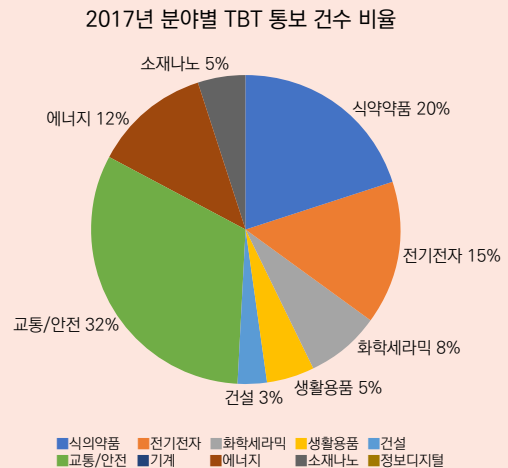
- 1차 특별 지원책 : 미국 301조 통관애로 지원단 구성 및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관리에 대한 안내 제공
- 2차 특별 지원책 :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 경감, 수출신고 시스템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 부과에 대한 유의사항 자동 팝업 안내, 보복관세 해당 품목 수출업체 선별 및 자율점검에 대한 안내발송
- 수출입 기업이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참여시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가 적극 지원할 예정

## ■ 지속 강화되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 ● 중국 TBT 통보문 현황

- 중국의 TBT 통보문 발행 건수는 2015년 106건, 2016년 35건, 2017년 60건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1995년~2017년까지 발행한 TBT 통보문이 총 1,314건으로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속함
- 중국에 대한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2017년 178건 중 47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2017년 제기된 미통보 STC는 전체 16건 중 5건을 차지함
- TBT 통보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교통/안전 분야가 높은 건수를 보이며, 전기전자, 에너지 분야도 상위를 차지함

\* 특정무역현안(STC) : WTO에 공시된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원국이 WTO/TBT 위원회에 공식의의를 제기하여 논의하는 것



### ● 중국의 기술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중국은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사안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전대응이 필요함
- 중국에 대한 미통보 STC 건수 비율로 알 수 있듯이 숨겨진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제2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

#### ● 2018년 7월 중국 재정부,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

- 중국 개혁개방의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자동차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소비자 수요 충족 목적
- 조정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2018년의 한-중 FTA 협정세율 대비 기준 세율이 낮고, FTA 협정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품목도 기준관세가 조정되기 때문에 확인하여 유리하게 선택할 필요
  - ❖ 핵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이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번 관세인하는 부품기업들에 기회 요인
- 완성차 세율은 135개 세번 품목(25% 적용)과 4개 세번 품목(20% 적용)은 15%로 조정하고, 79개 세번 품목(8%, 10%, 15%, 20%, 25% 적용)은 6%로 조정

### ■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금지 조치

#### ● 2018년 12월, 고체폐기물 및 목재폐기물 수입금지 시행

-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의 고체폐기물 및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폐기물을 포함한 16종의 고체폐기물을 전면 수입금지할 예정임을 발표
  - ❖ 2017년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이후 범위가 확대됨
- 2018년 12월부터 수입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폐플라스틱, 폐PET병, 폐자동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전기제품, 폐선박 등이 포함됨

2018년 12월 31일, 16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리스트(중국 HS코드 기준)

2618.0010.01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25%이상의 입상 슬래그
2619.0000.1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
2619.0000.3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철 함유량80% 이상의 웨이스트, 스크랩

2018년 12월 31일, 16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리스트(중국 HS코드 기준)	
3915.1000.00	폴리 에틸렌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알루미늄 복합 필름
3915.2000.00	스틸렌 중합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3915.3000.00	폴리 염화비닐(PVC) 스크랩
3915.901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페 PET 스크랩)
	페 PET병(압축품)
3915.9090.00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페 CD 스크랩
7204.4900.10	폐차 압축물
7204.4900.20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7404.0000.10	구리 회수를 위한 폐전기기계 등 전
7602.0000.10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선 등
8908.0000.00	폐 선박

2019년 12월 31일, 16종 고체폐기물(목재폐기물 포함) 수입금지 리스트(중국 HS코드 기준)	
4401.3100.00	목재 펄릿
4401.3900.00	기타 목재의 웨이스트, 스크랩
4501.9010.00	코르크 폐기물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 웨이스트, 스크랩
8101.9700.00	텅스텐 웨이스트, 스크랩
8104.2000.00	마그네슘 웨이스트, 스크랩
8106.0010.92	비스무트웨이스트, 스크랩
8108.3000.00	티타늄웨이스트, 스크랩
8109.3000.00	지르코늄웨이스트, 스크랩
8112.9210.10	게르마늄웨이스트, 스크랩
8112.9220.10	바나듐웨이스트, 스크랩
8112.9240.10	니오븀 웨이스트, 스크랩
8112.9290.11	하프늄 웨이스트, 스크랩
8112.9290.91	갈륨과 레늄 웨이스트, 스크랩
8113.0010.10	입상, 분말상의 텅스텐 카바이드 웨이스트, 스크랩
8113.0090.10	기타 텅스텐 카바이드의 웨이스트, 스크랩

## ■ 외국 유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 분유 조제법 등록제

### ● 2018년 1월, 수입된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 필요

- 중국으로 수입되는 조제분유 제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現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조제법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포장 라벨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함
- 영유아 분유를 취급하는 한국기업은 조제법 등록 심사조건을 주목해 조제법 등록 및 중문라벨 규정을 파악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
  - ❖ 조제법이 등록 허가되지 않은 분유제품은 품질보증기간 내에 조속히 재고정리가 이뤄져야 함

### ● 주요 분유 브랜드 조제법 등록현황

-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중국 분유공장 130개의 조제법 952개가 CFDA의 등록 허가를 받음
  - ❖ 해당 공장 130개 중 중국 공장이 93개이며 등록 허가된 조제법이 743개임. 해외공장은 37개, 등록 허가된 조제법은 209개
  - ❖ 외국브랜드 Mead Johnson(美赞臣), Wyeth(惠氏), Danone(达能), FrieslandCampina(菲仕兰)도 조제법 등록 완료
- 해외에 소재한 공장을 대상으로 현재 등록된 조제법 수가 가장 많은 국가 1위는 뉴질랜드)로 등록된 조제법 수는 54개이며 한국은 27개로 3위임

### ● CFD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분유 조제법 등록 심사원칙

분유 조제법 등록 3가지 심사 원칙	상표심사원칙
첫째, 조제법상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됨 둘째, 선택적으로 첨가한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셋째, 사용 금지 물질, 영유아 분유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 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나 과대 광고를 상용하거나 극단적인 단어 사용 금지</li> <li>- 질병 예방 관련 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금지</li> <li>- 치료 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금지</li> <li>- 건강 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금지</li> <li>- 식품안전규정 외 기타 기능 포함 금지 또는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li> </ul>

## ■ 수입식품·화장품 등록 추적 시스템 구축

### ● 2017년 3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現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S)),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시행

- 2017년 3월, 중국 AQSIQ,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시행
- 수입화장품의 수입, 판매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수입화장품 안전문제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해 상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



# 제Ⅳ장

## 중국 전자상거래 (E-Commerce, EC)

- 제1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 제3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형 및 유의사항
- 제4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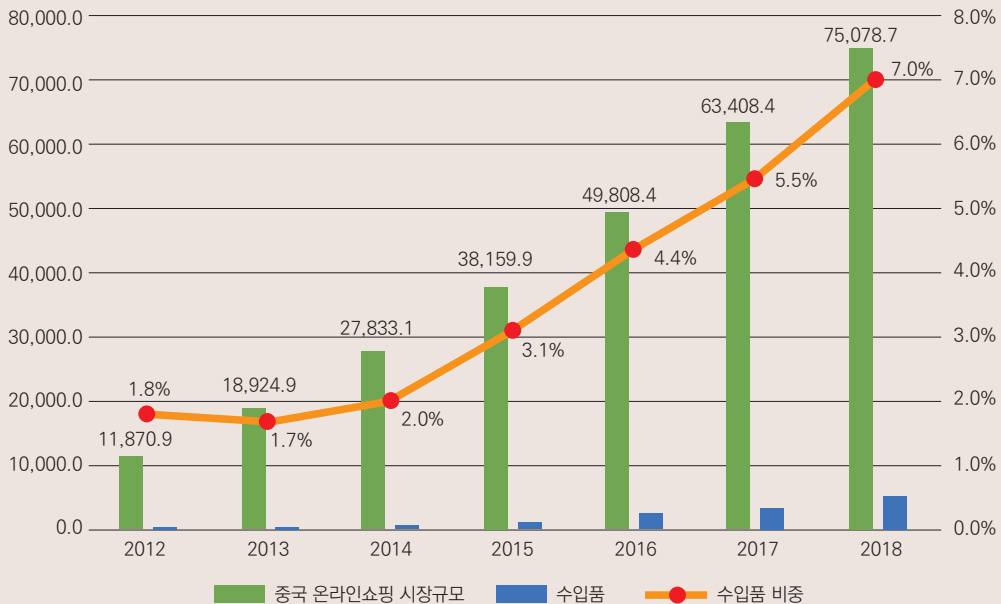
## 제1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 국경 간 전자상거래(CBEC)는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잠재력 또한 ↑

#### ● 최근 몇 년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은 중국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매총액은 2015년에는 전년대비 37.1% 증가한 약 3조 8,160억 위안, 2018년에는 약 7조 5천억 위안 달성 예정
-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판매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전체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에는 7.0%로 2015년 3.1%에 비해 두배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규모와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iResearch 「2016년 중국 초경수입 소매 전상업 연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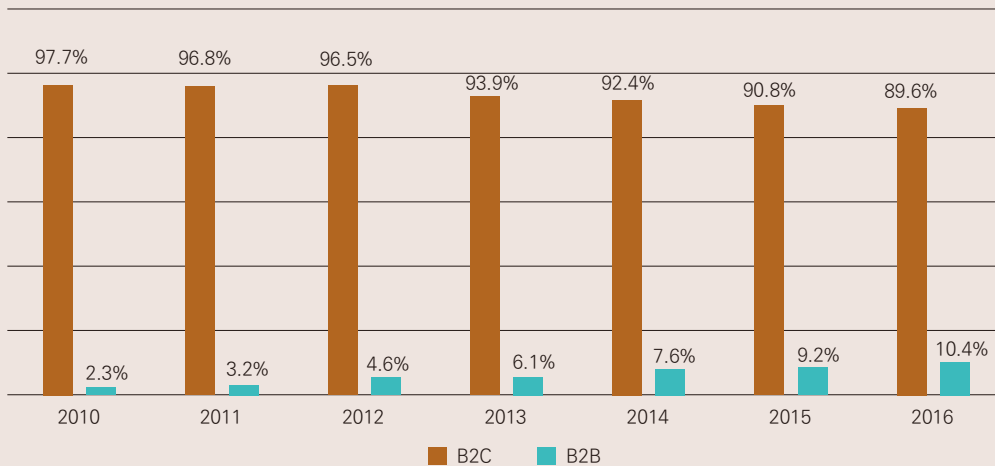
\* CBEC는 Cross Border E-Commerce의 약자

\* 2018년 10월 31일 기준 환율 : 1위안 ÷ 162원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은 2015년 대비 2018년에는 4.4배를 초과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거래현황)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형태는 B2C형태의 국경 간 소매교역이 전체 거래의 약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거래형태) 대리구매, 해외직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들어 B2C 방식에서 B2B 거래방식으로 적극적 전환 시도 중임

〈중국 국제전자상거래에서 B2B, B2C 비중〉



자료: i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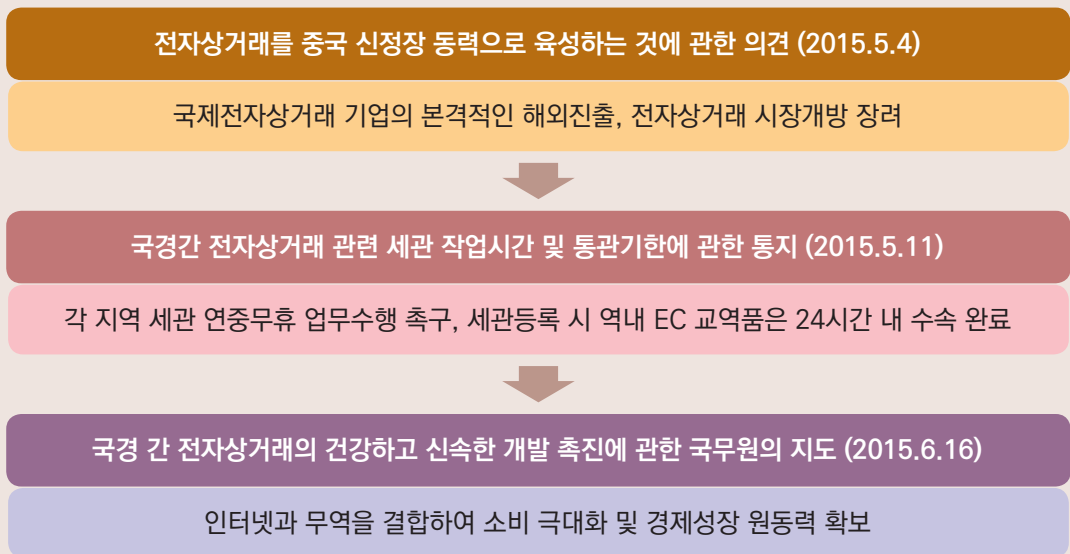
## ■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및 육성이지 고조

- 중국 국무원과 상무부는 2015년 5월 ‘전자상거래를 중국 新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에 관한 의견’과, ‘인터넷 플러스 정책’ 발표
  - (내용) 전자상거래 거래액 22조 위안, 온라인 소매판매 5조5천억 위안 달성목표,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지역 육성, ‘O2O(Online to Offline)’를 적극 장려<sup>11)</sup>

11) 온라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받는 서비스임

- 중국 국무원은 2016년 세관총서, 상무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물류 발전계획(2016~2020)’을 공표
  - (목표) 네트워크 개선, 구조합리화, 기능고도화, 고효율적 운영, 우수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구축

〈주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 ■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시장의 발전

- 2013년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의 합법화 및 조세정책의 변화로 2014년~2015년은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플랫폼 설립의 전성기
  -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
  -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다양해지고 증가
- 「2016년 중국4·8 세제 개편」으로 신중국 해외직구 세제가 시행되면서 B2C 방식에서 B2B 방식으로의 전환 가속도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다양해지고 증가

## 〈4월 8일 해외직구 신정책 발표 주요 내용〉

- ① 1회 관세면세 한도를 2,000위안(기존 1,000위안)으로 조정하고,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 ②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감면하고 상품 관세는 0%로 설정
- ③ 그간 행우세 50위안 이하 상품에 적용하던 행우세 면제 혜택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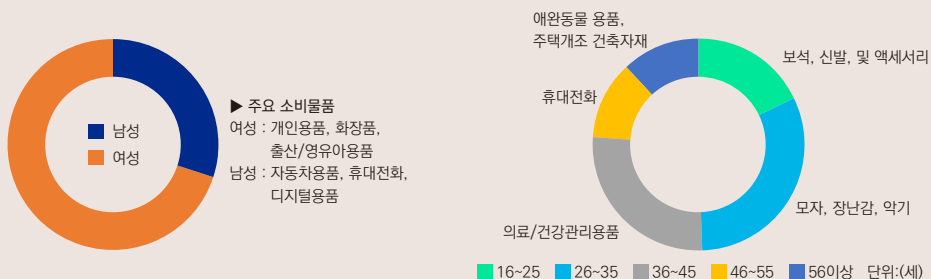
## 〈2016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정책 변화〉

발표일	효력일	정책 및 기관
2016. 3.24	2016. 4. 8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금정책에 대한 공지 사항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财关税[2016]18号,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總局)
2016. 4. 7	2016. 4. 8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리스트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
2016. 6.15	2016. 4. 8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4.8일 정책 해설 발표

## ■ 중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다양화

- 중국에서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주체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소득수준 및 연령이 다양화되고 있음
  - 2018년 징둥닷컴(JD.COM)에 따르면 여성 소비자들이 절반 이상임
  - 2018년 기준 29-39세 연령층의 온라인쇼핑 이용자수가 5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연령대별 주요 해외직구 물품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중국에서의 해외직구 구매자 성별, 연령대별 비중〉



자료 : JD.COM(2018), “한국전략발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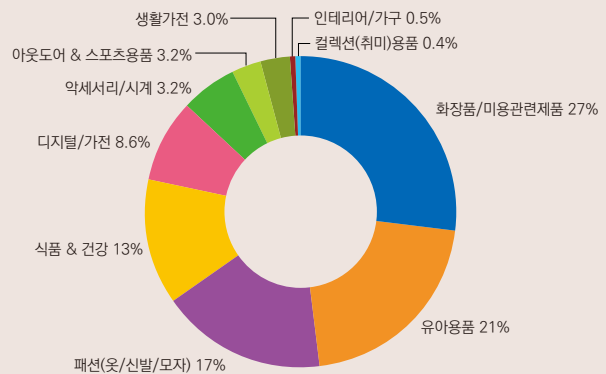
## ■ 해외직구족 급증, CBEC 플랫폼을 통한 주요 수입품은 화장품 및 유아용품

### ●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래되는 인기상품으로는,

- 화장품·미용품이 가장 많이 거래 되고 있으며 유아용품, 식품&건강 관련품목, 패션 순임

### ● 실제 중국 대표적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국제(天猫国际) 및 타오바오(淘寶国际)의 2015년 카테고리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화장품 등 미용관련 상품이 상위 순위를 점하고 있음

〈2015년 티몰·타오바오 카테고리별 매출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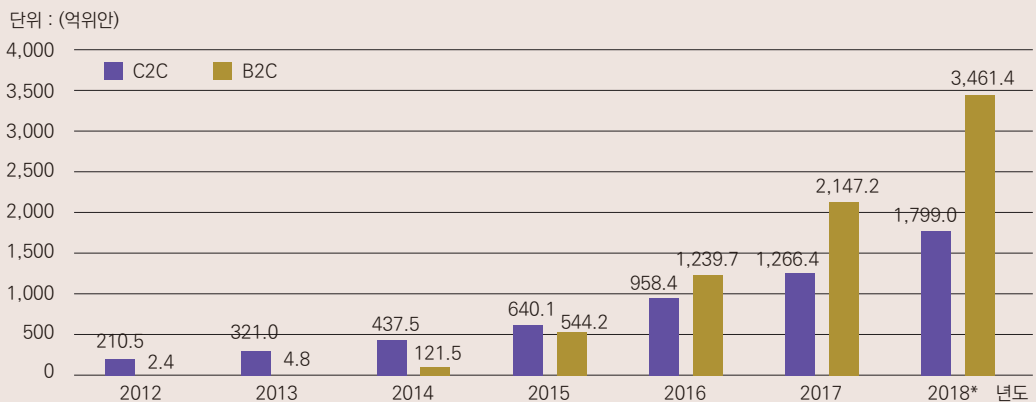


자료 : Nint for China(Adways)

### ● 중국의 온라인쇼핑 거래유형은 타오바오(Taobao)를 통한 C2C(소비자간 거래) 거래유형과 티몰(Tmall)과 징둥(Jingdong)을 통한 B2C(기업 대 개인)거래가 대표적

### ● 2015년 까지는 C2C 거래 비율이 높았지만 2016년 이후로 B2C 거래가 C2C보다 높음

〈온라인쇼핑 수입품 판매규모〉



## ■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자 증가

### ● 2017년 상반기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7.5억, 보급률 54.3%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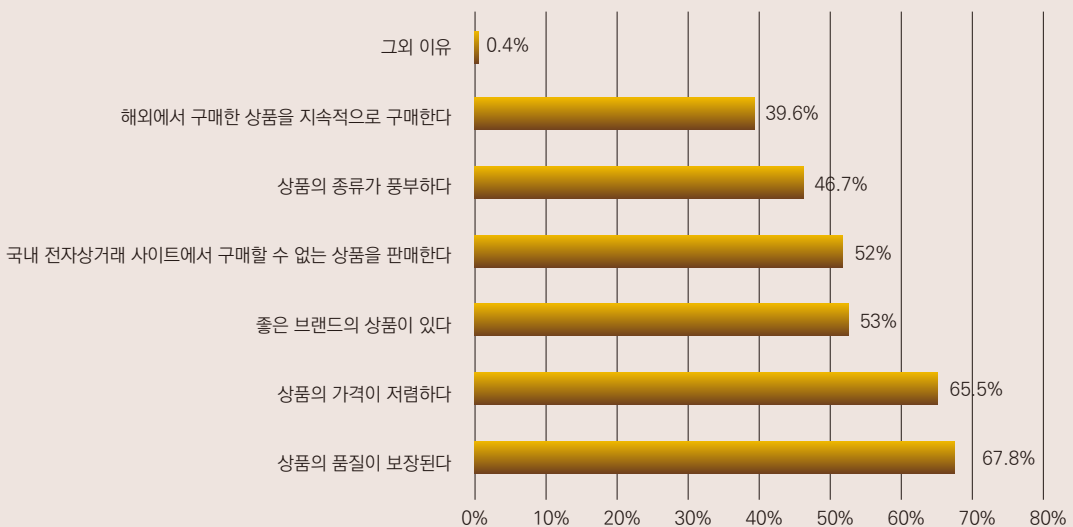
- 인터넷 사용자 중 휴대폰 이용자는 약 96% 정도로 이용자 증가

## ■ 중국 소비자들의 CBEC 거래 상품에 대한 신뢰도 고조 ↑

### ● 중국소비자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①상품의 품질이 보장되어 있고, ②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임

- 상품의 품질이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국내시장에서는 위조(짝퉁) 상품이 많기 때문에 외국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음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품은 해외에서 유통하며 위조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믿기 때문임
- 또한, 주로 중국 현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품을 살수 없는 경우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 화장품 등 중국 내에서 판매허가 취득이 불허된 경우 현지 사이트에서 판매 불가

〈중국소비자 해외직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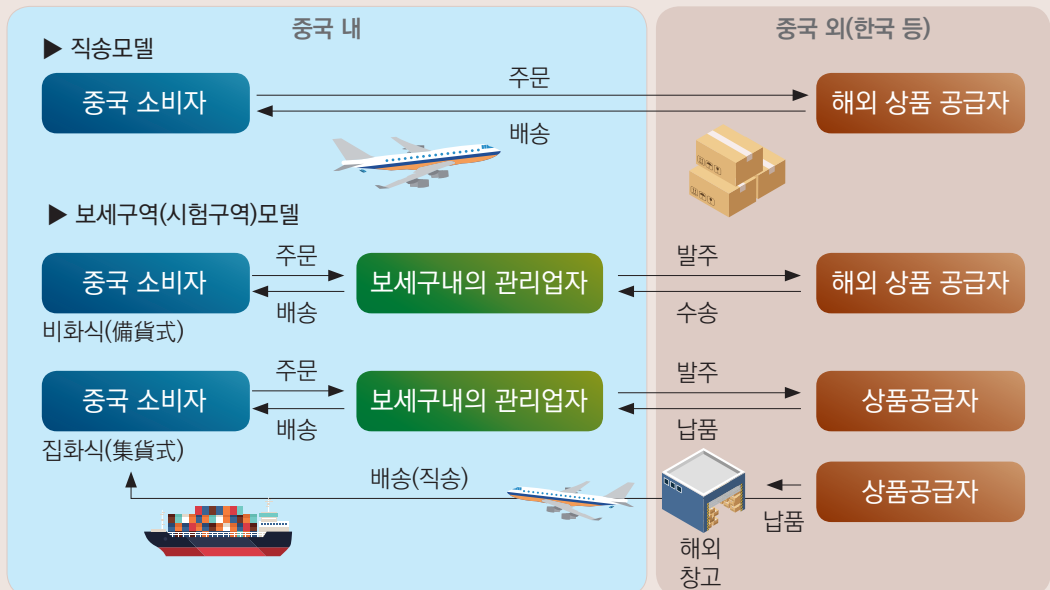
##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대표적 형태 - 직송모델, 보세구모델

#### ●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즉, 해외직접구매 방식은 크게 2가지임

- (직송모델)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 운영자가 개개인의 주문에 대해 해외로부터 EMS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개별 배송함
- (보세구모델)<sup>12)</sup> 전자상거래 기업이 수요를 예측하여, 해외에서 미리 대량의 상품을 구매한 후 중국 내 지정된 보세창고에 상품을 보관하였다가 전자상거래사이트를 경유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창고에서 상품을 배송함 (B2B2C형태)
  - ◆ 판매상이 중국 소비자로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은 후 상품을 한국내 물류기업 및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센터 등 중국 외 해외 창고에 보관했다가 일정량에 도달할 때 일괄적으로 중국으로 배송 시 집화직배송모델(B2C형태)

〈직송모델과 보세구역모델〉



12) 2013년부터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지정하여 해외직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지원

## ■ 2016년부터 중국은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

### ● 개편된 세제 하에서는 직구유형별로 다르게 상품 과세 적용

- (개편 전) 두가지 방식 모두 행우세<sup>13)</sup>를 적용
- (개편 후) 보세구모델→신규 해외직구 종합세, 직송모델→ 개편한 행우세로 다른 세목을 정함

- ① 보세구모델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로 간주하여 플랫폼을 통한 B2C 수입품을 행우세 폐지대상으로 지정하나, 신규 해외직구 종합세인 국경 간 소비수입세 적용
- ② 직송모델은 ‘개인거래’,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반입되는 개인용 수화물, 우편물은 행우세 유지대상으로 지정하되 기존 행우세보다 세율 강화

### ● 세제 개편을 통한 통관절차 개정

- 보세통관 등 혜택을 받아왔던 비화식은 역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이 아닌 무역화물취급을 받게 되면서 일반무역 통관수속 절차 진행
- 따라서 중국 온라인 시장 진입 위해서 상품권,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위생허가, 인증서류 등 일반무역 방식으로 준비

#### 〈중국 행우세 변경 전 후〉

변경전	변경후	
행우세	신규 해외직구 종합세 (보세구 통관 물품)	개편된 행우세 적용
세금 50위안 이하 : 면세혜택	1회당 거래금액 2천 위안 이하 : 관세면세, (증치세+소비세)의 70% 부과	1. 일반무역 기준 무관세 상품은 행우세 15% 2. 일반무역 기준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은 행우세 60% 3. 기타 상품 해우세 30%
세금 50위안 이상 : 우편세율적용(10~50%)	1회당 거래금액 2천 위안 이상 또는, 1인당 연간 거래금액 2만 위안 이상 관세 부과, 증치세 및 소비세 전액 부과(일반무역과 동일)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직구 B2C 상품에 대한 세수정책 통지

13) 행우세(行郵稅)는 소량의 자가사용물품(여행객의 휴대물품, 증정품, 비상업 목적으로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물품 등)에 징수하는 일종의 간이통관 수입세를 말함.

##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 강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포지티브리스트」 공표

- 기존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능물품은 정부가 금지한 품목 이외의 상품이면 거래가 가능하였음. (2016년 4월) 이후 국가가 공개한 포지티브리스트<sup>14)</sup>에 공표한 상품만 전자상거래상에서의 거래가 가능함

- 수입품 목록이 정해져서 1차로 지정한 1,142가지 품목과 2차로 지정한 151개를 합한 총 1,293개의 품목만 한정하여, 중국 보세구역에 반입해 직구로 판매 허가
- 한국의 경우 주요 B2C 수출품목인 화장품, 의료기기, 영유아용 조제분유, 특수식품류(특수의약품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인증 받은 제품(최초 수입허가·등록·비안 등)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한
- 하지만 통관규제 및 인증제 강화의 경우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5월 11일 까지로 유예함(2016.5.25). 상무부는 해당 유예기간을 10개 시범 도시에 대해 2017년 말, 2018년 말까지 재차 연장해왔으며, 2017년 12월 유예도시를 10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유예기간 또한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함

- 포지티브리스트는 상품명, HS코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상품이 보세수입의 금지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 〈포지티브리스트 기재내용 확인 방법〉

序号	税则号列	中文货品名称	备注
306	33013090	其他香膏	列入《进出口野生动植物种商品目录》的商品除外；首次进口的化妆品除外
307	33019010	提取的油树脂	列入《进出口野生动植物种商品目录》的商品除外；依法不属于普通食品或依法需要注册备案管理的特殊食品除外
308	33019090	用花香萃取法或浸渍法制定的含浓缩精油的脂肪、固定油、蜡及类似品；精油脱萜所得的萜烯副产品（柑桔属果实的除外）；精油水溶液及水馏液	首次进口的化妆品除外
309	33030000	香水及花露水	首次进口的化妆品除外
310	33041000	唇用化妆品	列入《进出口野生动植物种商品目录》的商品除外；首次进口的化妆品除外

수출입야생동식물종상품목록에 의거하여 일반무역 등 보세수입을 인정하지 않음.

14) 「국경간 EC소매수입상품리스트」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4/P020160407628544745898.pdf> (2016.4.7 공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4/P020160415822493955077.pdf> (2016.4.16 공표)



## ■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된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절차

구분	해외 전자상거래 유형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		중국 플랫폼 미사용	해외에서 직접 구매
	보세구 방식(B2B2C)	집화집배송 방식(B2C)	국제택배	개인휴대품
거래한도	1회 거래액 2000RMB, 연간 거래액 20000RMB		1000RMB 이하만 배송	-
세율	행우세 폐지 (2016.4.8)		행우세 유지 (2016.4.8)	행우세 유지 (2016.4.8)
	관세 0%, 소비세, 증치세의 70% 징수	관세 0%, 소비세, 증치세의 70% 징수	개정 행우세 (15, 30, 60%) 적용 ※ 운송장등 등전자)제출 시 국제택배모델 세율적용	5천RMB 초과시 개정 행우세 적용
면세한도	폐지		50RMB 유지	50RMB 유지
납세 의무자	(원칙) 구매자 개인 (대행) 전자상거래업체, 플랫폼 업체, 물류업체	(원칙) 구매자 개인 (대행) 전자상거래업체, 플랫폼 업체, 물류업체	구매자 개인	구매자 개인
과세표준	실제 거래가격 (구매가격) + 보험료 + 운송료	실제 거래가격 (구매가격) + 보험료 + 운송료	-	-
반품 시	통관일로부터 30일내에 원상태로 해관감독 장소 반입	통관일로부터 30일내에 원상태로 해관감독 장소 반입	-	-
수입 가능품	4.7일	1,142개(HS 8단위)	1,142개(HS 8단위)	-
	4.15일	151개 추가 (HS 8단위)	151개 추가 (HS 8단위)	-
화장품	(원칙)위생허가(O), 등록(O)	위생허가(O), 등록(O)	개인용품만 반입	개인용품만 반입
분류	2018.1.1부터 상품배합등록 필요	2018.1.1부터 상품배합등록 필요	영아증명서 필요(유예)	영아 사용물량

## ■ 중국의 개인정보 공개 제한에 관한 규제

### ● 2017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사이버보안법」은 데이터 보존과 관련한 규제 발표

- 제37조 : 중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만 보존해야함.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외국으로 제공해야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서가 국무원과 함께 제정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함

## 제3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형 및 유의사항

## ■ 중국 판매주체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분

### ● 온라인 판매 채널 이해

- (오픈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이 오픈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업 혹은 개인이 오픈플랫폼 안에서 상점을 열어서 판매하는 형태
- (직접운영) 전자상거래 기업이 직접 판매상이 되어서 상품을 판매, 운송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 ● 판매주체에 따른 구분

판매주체에 따른 구분	
B2C	판매주체가 기업인 경우 B2C는 플랫폼 방식과 직접 운영방식으로 나뉨
C2C	판매주체가 개인인 경우 C2C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

### ● 기업종류에 따른 구분

기업종류에 따른 구분	
내수쇼핑몰	타오바오, 티몰, 징둥
내수쇼핑몰 내 국제몰	니콜국제, 징둥글로벌
국제 전자상거래 쇼핑몰	양마토우, 시아옹슈
한국상품 전문몰	에이컴메이트, 한국가, G마켓 중국판

###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방법

구분	내용
① 온라인쇼핑 플랫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C : 티몰(Tmall), 징둥(JD), 티몰국제, 징둥글로벌, VIP</li> <li>- C2C : 타오바오(Taobao)</li> <li>*중국 4대 국유은행의 온라인 플랫폼</li> <li>- 건설은행[선융상무(善融常務)], 공상은행[롵e고우(融e購)]이 대표적</li> </ul>
② 온라인쇼핑 플랫폼 판매대행 지원사업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청 : Taobao, Suning 등록 및 판매대행</li> <li>- 중소기업진흥공단 :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지원</li> <li>- aT : YHD, 알리바바 내 한국 식품 전용관 구축 및 홍보</li> </ul>
③ 국내 해외직판 플랫폼 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all24 : 해외직판 전용 온라인 쇼핑몰(Kmall24.co.kr)</li> <li>- 판다코리아 : 中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내 해외직구가 가능한 유일한 한국기업(pandakorea.com)</li> <li>- 혜명 :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식 온라인 플랫폼 한상취(韩尚聚)’ 한국기업(www.koyimall.com)</li> <li>- Arca DFS(www.hanguomianshui.com) : O2O 콰이징 상하이 보세 면세점 한국판</li> </ul>
④ 자체 역직구 쇼핑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쿤(tqoon.com)</li> <li>- 자체 구축 : 마젠티, 워드프레스 툴 활용 등 자체 개발</li> </ul>

## (1) 현지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 ● 주요 플랫폼 소개

#### 〈중국 10대 전자상거래 수입플랫폼〉

명칭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5년 1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해외직송+보세수입</li> <li>• 품목 : 종합품목</li> <li>• URL : <a href="https://www.kaola.com/">https://www.kaola.com/</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4년 2월</li> <li>• 경영방식 : 제3자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해외직송+보세수입</li> <li>• 품목 : 종합품목</li> <li>• URL : <a href="https://www.tmall.hk/">https://www.tmall.hk/</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4년 1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해외직송+보세수입</li> <li>• 품목 : 종합품목</li> <li>• URL : <a href="http://www.jd.com/">http://www.jd.com/</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4년 9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해외직송+보세수입</li> <li>• 품목 : 뷰티, 영유아, 패션</li> <li>• URL : <a href="https://www.vip.com/">https://www.vip.com/</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3년 12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해외직송</li> <li>• 품목 : 화장품, 생활용품</li> <li>• URL : <a href="https://www.xiaohongshu.com/">https://www.xiaohongshu.com/</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09년</li> <li>• 경영방식 : 제3자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직매, 직구, 직송 방식</li> <li>• 품목 : 종합품목</li> <li>• URL : <a href="http://www.ymatou.com/">http://www.ymatou.com/</a></li> </ul>

 M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4년 3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일반무역+해외직송+보세수입</li> <li>• 품목 : 영유아용품</li> <li>• URL: <a href="https://www.mia.com/">https://www.mia.com/</a></li> </ul>
 Jum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4년 9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보세수입</li> <li>• 품목 : 화장품</li> <li>• URL: <a href="http://mall.jumei.com/">http://mall.jumei.com/</a></li> </ul>
 Yh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4년 9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해외직송+보세수입</li> <li>• 품목 : 식품, 영유아용품, 뷰티제품</li> <li>• URL: <a href="http://www.yhd.com/">http://www.yhd.com/</a></li> </ul>
 Su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시기 : 2014년 2월</li> <li>• 경영방식 : 직영 B2C+ 제3자 B2C</li> <li>• 제품수입방식 : 해외직송+보세수입</li> <li>• 품목 : 영유아용품, 뷰티, 가전, 패션</li> <li>• URL: <a href="https://g.suning.com/">https://g.suning.com/</a></li> </ul>

자료 : 中国商务部, 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 京东研究院, 中国产业经济信息网, 艾媒咨询, 第一财经商业数据中心, 天猫国际, 中国国际电子商务网 및 각종 보도자료, KOTRA 광주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18-04-02)

## ●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쇼핑 플랫폼

- 중국의 건설은행은 2012년 중소기업들의 매출 및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자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출시함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총거래액은 중국건설은행이 알리바바 대출을 제공했던 2008~2011년 3년동안 2.2배 성장했고, 2015년에는 15조위안에 달함
- 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중국 은행들은 온라인쇼핑몰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 중임
- 중국의 경우 2017년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법이 없고 각 분야별 법률로 해당 산업을 규제 중에 있음. 전자상거래 분야는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임

〈중국 은행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현황〉

명칭	소개
 ICBC 공상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 : 룡e거우</li> <li>• 형태 : B2B, B2C</li> <li>• 상품/서비스 : 판매상품에 여행상품, 선불 충전 및 수수료 결제 기능, 자동차 등 포함 쇼핑물 내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도 판매</li> </ul>
 中国建设银行 China Construction Bank 건설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① : 선룽상우</li> <li>• 경영방식 : B2B, B2C</li> <li>• 상품/서비스 : 판매상품에 자동차, 요트, 건축자재, 여행상품, 금융상품 등 포함</li> <li>• 쇼핑물② : 인항방통</li> <li>• 형태 : 부동산거래</li> <li>• 상품/서비스 : 지역별 부동산 거래 정보 및 대출 신청 가능</li> </ul>
 交通銀行 BANK OF COMMUNICATIONS 교통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 : 지아오보웨이</li> <li>• 형태 : B2B, B2C, 신용카드몰</li> <li>• 상품/서비스 : 판매상품에 명품브랜드 상품, 지역 식당 쿠폰, 여행상품 등 포함</li> </ul>
 中国农业银行 AGRICULTURAL BANK OF CHINA 농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 : E상관지아</li> <li>• 형태 : B2B, B2C, 포인트몰, 결제몰</li> <li>• 상품/서비스 : 결제몰-자산관리수수료, 임대료, 난방비용, 전기세 등 각종 비용 결제 플랫폼</li> </ul>
 中國銀行 BANK OF CHINA 중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 : 총밍거우</li> <li>• 경영방식 : B2C</li> <li>• 상품/서비스 : 여행상품 포함</li> </ul>

●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방법 및 유의점

- 알리바바(Alibaba)그룹 하에 타오바오, 티몰, 티몰국제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 각각에 등록된 판매자, 판매현황, 입점 방법 등이 상이함
- 대표적으로 중국내 내수 쇼핑 플랫폼인 티몰닷컴과, 직구 글로벌 플랫폼인 티몰국제 경우 입점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체크가 필수적임

	 티몰	 티몰국제
법인요건	중국사업자 - 기업형 알리페이 연동	한국사업자 - 기업형 알리페이 연동
상표권	중국 사업자등록증	한국 사업자등록증
품질보증	중국 상표등록권	한국 상표등록권
중국어라벨	중국 내수용 라벨 필수	필수 아님
배송조건	24시간 내 발송, 48시간 내 송장입력	72시간 내 발송, 물류 추적 서비스 필수
교환조건	7일 내 무조건 반품(분량 여부 무관)	제품 품질 불량 건 처리
연회비	연회비 3만~6만 위안	연회비 \$5,000~10,000
보증금	보증금 5만~15만 위안	보증금 \$25,000
수수료	판매수수료 4~5%	판매수수료 3~6%
필수사항	중국 소비자보호법 3대 보장 정책 준수	C/S(중문), 중국내 반품처

\* 준비서류와 비용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및 상담 후 진행해야함

유형	매장형 스토어	브랜드 플래그 스토어	전문 영업점	전문 판매점
기업 자격 (공통)	① 기업등록서류 (상업등기증서/경영허가증/사업자등록증/기업등록증) ② 수권대표인 성명서 ③ 대표이사 및 판매자 신분증 사본(여권/국외운전면허증 포함)10 ④ 세무등기 혹은 최근 일분기 내 납세 증명 서류 ⑤ 개점주체 기업의 해외은행계좌 증명 혹은 은행 거래내역 정산표			
기업 자격 (추가)	⑥ 해외에서 출품 된지 1년 이상 지난 35유형 상표등록증서  상표등록지가 해외 여야 함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상표등록증서 비소지자는 반드시 독점권양도계약서를 소지해야함	⑥ 판매상품의 상표등록증서  상표등록지가 해외 여야 함(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상표등록증서 비소지자는 반드시 독점권양도계약서를 소지해야함	없음	⑥ 판매상품의 상표등록증서  상표등록지가 해외 여야 함(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상표등록증서 비소지자는 반드시 독점권양도계약서를 소지해야함

유형	매장형 스토어	브랜드 플래그 스토어	전문 영업점	전문 판매점
브랜드 자격 (모든 스토어 유형에 해당)	<p>일급브랜드의 권리부여 증서</p> <p>정규입고증빙서류 혹은 공급업체와의 표준 파트너십 계약서를 제공하면 2급으로 올라감</p> <p>(마켓영수증 등 개인위탁구매 영수증 불가능)</p> <p>위 조건에서 최소 1개 이상 항목 동시 만족 필수</p>		<p>일급브랜드의 권리부여 증서</p> <p>정규입고증빙서류 혹은 공급업체와의 표준 파트너십 계약서를 제공하면 2급으로 올라감</p> <p>(마켓영수증 등 개인위탁구매 영수증 불가능)</p> <p>위 조건에서 최소 1개 이상 항목 동시 만족 필수</p>	

- 다음은 징둥 내수물과 징둥 월드와이드 직구물 입점요건을 비교한 것임. 징둥월드와이드는 수입 전문 플랫폼으로, 해외구매자(외국인, 해외거주 중국인)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전문 플랫폼인 징둥글로벌과는 다른 플랫폼임

	 징둥 내수물	 징둥 월드와이드
내수시장	재고, 마케팅 투자 상대적 높음	재고, 마케팅 투자 상대적 낮음
법인요건	중국법인	해외법인만 가능
상표권	중국 내수 상표 출원/등록	해외 현지 상표권으로 가능
품질보증	중국 관련 인허가 필수	해외 현지 보고서
중국어라벨	필수	필수 아님
배송조건	24시간 내 발송, 48시간 내 송장 입력	24시간 내 발송, 물류 추적 서비스
교환조건	7일 내 무조건 반품(불량 여부 무관)	제품 품질 불량 건만 처리 의무
필수사항	중국 소비자 보호법 3대 보장 정책 준수	C/S(중문), 중국 내 반품처

- ◆ 소비자보호법 3대 보장 정책 : 7일 이내 변심 반품 가능, 15일 내 품질문제 시 교환, 수리 가능, 1개월 내 AS 문제발생 시 제품 교체 가능함



- Vip.com 일반 오픈 마켓 입점과 다르게 입점비, 운영비 없이 구매대행 혹은 사업 등의 방식으로 협력
  - ◆ 중국 내 5개의 보세구역에 직구용 창고 13개, 기중 자영 창고 6개 보유, 해외 11개 대도시에 직구방식으로 해외창고 운영 중임. 2015년 4월 28일 한국 서울에 한국법인 자회사 설립되어, Vip Korea 인천 직영 물류센터를 운영 중임. 공급자가 인천공항의 직영창고까지 상품을 배송하면 Vip.com에서는 중국내 마케팅, 물류, cs등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2)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대행 지원사업 활용

관련부처	지원사업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등록 및 판매지원 (상품등록, 판매전략 수립, 홍보, 배송, C/S 등 전 과정 대행)</li> <li>•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위해 외국어 상품 페이지 (전자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 지원)</li> </ul>
무역협회 *Kmall24	온라인해외판매 정보포털(Kmall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대표 중소기업 수출전용 온라인 쇼핑몰 구축</li> </ul>
농림축산식품부 *aT농수산물유통공사	Tmall(중국) 내 한국 전용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리바바(Tmall)에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 (중국, 일본, 미국 등 온라인마켓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 전개)</li> </ul>

## (3) 해외직판 플랫폼 입점

명칭	내용
판다코리아 (panda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B2C형태로 국내의 우수한 브랜드와 중국 소비자들과 연결</li> <li>•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내 해외직구가 가능한 유일한 한국업체로 한국정품 인증사업 마크를 보유하고 있음</li> <li>• 중소기업 제품은 연간 입점비와 수수료가 무료임</li> </ul>
Kmall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독립된 샵 입점을 지원하고 있어, 초기비용이 절감되며, 중국 현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진출을 위한 사전 반응 테스트가 가능함</li> <li>• 중소기업 제품은 연간 입점비가 무료이고, 수수료는 3%임</li> </ul>

## ■ 중국의 제3자 지불결제 수단 보급 및 활성화

### ●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이득

- (배경) 중국은 신용카드사용이 보편 되어 있지 않고, 위조지폐가 대규모로 유통되어 상품 거래에 대한 불신도가 높음. 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거래하여 상품 대금을 지불하였어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함
- (모바일 결제시스템) 소비자는 결제의 편리함과 적립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생산자는 수수료 등의 부가 비용을 낮출 수 있음
- 중국의 모바일 결제 거래 시장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알리페이, 위챗페이, 텐페이 순으로 규모가 큼

### ● 알리페이(Alipay)의 에스크로 플랫폼



-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자회사 타오바오 소비자의 결제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3자 결제시스템임
- (수수료 부과방식) 기업판매자 →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가 감소하는 체계를 적용, 개인판매자 → 제품 부가서비스별로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여 판매자의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기업은 2019년 1월 시행될 新전자상거래법 숙지 필수

### ● 중국전자상거래법은 관리대상을 온라인쇼핑 플랫폼 진입 기업으로 확장

- 2018년 8월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었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특히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 책임 등 주요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 웨이상(微商)<sup>15)</sup>,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영자를 포함함
  - ❖ 타오바오 자영업자도 시장주체등기 필수 (즉, 세금납부의 의무) → 현재 (2018년 기준) 개인이 온라인샵을 개설하면 시장주체등기<sup>16)</sup>는 필수요건이 아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등기가 의무화됨

1. 사업자 등록, 영업허가증 필요
2. 특수상품(식품<sup>17)</sup> 등) 판매 시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자격 취득 필요
3. 판매제품 안전성 결함 적발 시 해당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연대 책임

\* 다만,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 가내수공업제품,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개인의 기술을 활용한 노무활동과 소액교역활동, 법과 행정법규상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함

- 이로써 상품 및 서비스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허위교역 및 소비자 후기 조작을 금지하며,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평가내역 조작금지
- 소비습관에 근거하여 특정상품이나 서비스 검색결과 제공 시 개인특징을 타깃팅하지 않은 검색결과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리 보장

15) 웨이상(微商)이란 SNS플랫폼인 웨이신(微信), 모모(陌陌), 웨이보(微博)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함.

16)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개인 판매자들의 등록 의무(제10조, 농산물, 가내수공업으로 제작한 것 판매 외에는 모두 등록), 세금납부 조항(제11조)

17) 식품 등 특수상품을 취급할 시 식품유통허가증을 추가로 취득해야함. 중문라벨이 없거나 당국에 제조방법이 등록되지 않은 분유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금지됨.

-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하는데 정부가 정한 안전관리요구에 부합해야함. 부합하지 않을 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함
- 전자상거래법은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비우호적인 구매평 및 리뷰를 임의로 삭제했을 시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며 웨이상, 샤오홍슈 등 개인판매자들도 전자상거래 범주에 포함됨

## ■ 중국 온라인 구매제품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가능

### ● 온라인구매상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규칙 시행

- 2017년 3월부터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25조 ‘온라인 판매상품 7일 내 반품’ 조항, ‘경영자가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그 반환 상품의 배송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함  
(적용상품) ‘7일 내 환불’원칙은 이하 7가지 상품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판매상품에 적용 (환불절차) 7일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서명한 다음 날부터 계산
- ‘7일 내 환불’ 불가 상품

‘7일 내 환불’ 불가 상품	비고
1) 소비자가 주문/제작한 상품, 부패하기 쉬운 신선상품 2)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개방한 음향/ 영상제품 3)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교부한 신문/ 정기간행물	무조건적인 반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5) 개봉 후 인체안전과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과 개봉 후 상품품질에 변화가 생기는 상품 6) 사용 후 가치가 급락하는 상품 7) 판매 시 ‘유통기간 임박 상품’, ‘하자상품’등을 명시한 상품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경우 7일 내 무조건적인 반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제4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 ■ 국내 전자상거래 FTA 수출활용 방법

- 관세청은 2016년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식통관절차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sup>18)</sup>를 시행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 도입배경

- 일반적인 수출신고제도는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음
- 국민소득 증대 및 내수진작을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됨

##### 행정지원

- 수출신고항목을 축소하여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함
- 해외거래처 부호(구매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함
- 관세청 통관포탈을 통해 일괄 등록 기능을 도입함

- (FTA수출활용 방법)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수출활용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아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생략 가능한 항목을 배제하고 수출신고

구분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가능	신고항목
정식수출신고	전자상거래수출	○	○	57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33개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이하)	통관목록(특송화물)	△	×	17개
	통관목록(국제우편)			17개

- (변경사항) 20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2013년도에 57개 수출신고 항목도 2015년에는 33개까지 줄어들었고, 수출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해외 배송하는 200만 원 이하 물품은 수출실적으로 인정함.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신고와 특송업체 등록이 편리해짐

18) 관세청고시 제2016년 70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비환급대상건의 경우 (3) 제조사 기재항목 중 제조사 통관고유부호, 제조사 일련번호 및 (31) 성분

※ 처리기간 : 즉시

Page : 999/99

